[원고]

당신의 XX를 주세요!

칸막이를 넘나드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같은 소음이 사라지고 두드려지는 키보드 소리나 가끔 커피를 홀짝이는 소리만이 남은 사무실은 고요했고 적막했다.

"하준씨, 내가 할테니 들어가봐요."

'나이스…!'

"이대리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하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어깨에 매고 빠른 발걸음으로 책상과 캐비닛 사이를 빠져나왔다.

이진우 대리. 하준의 사수다.

'남들은 다 상사 욕하던데 나는 복 받았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다 떠맡고 매일 밥먹듯이 야근하는 상사를 1년동안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하준이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뭐.

하준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잘 닦여 반짝이는 짙은 회색 외제차에 타고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피스텔은 은은한 푸른빛의 회색이 감도는 외관을 가진 세련된 신축 건물이었다.

하준은 집에 도착하자 마자 넥타이를 풀러 소파 위에 던져놓고 입고 있는 옷을 차례로 다 벗어던졌다. 그리고 딱 달라붙는 검은 바지와 검은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갈색 가죽 자켓을 입었다. 하준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도드라진 근육들에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하준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클럽 <Guns Hell>이었다. 입구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준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근육질의 남자와 눈인사를 하고 클럽 안으로 향했다. 갖가지 색의 조명이 하준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준!"

바텐더가 들어오는 하준을 보더니 익숙하게 잔에 얼음과 물을 부어주었다.

“오늘 좀 어때?”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하준이 바텐더에게 가까이 가서 크게 말했다.

“저기 저 쪽에 쟤 보여? 잘생겼지?”

바텐더가 홀에서 춤추고 있는 키가 크고 단단한 몸매의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오늘은 너다.

-

남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하준이 따라 들어갔다. 남자가 하준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당겨 입맞췄다.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입술을 거칠게 탐하던 그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냉장고에서 병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맥주를 머금고 옆에 있는 하준의 입으로 옮기려고 다가왔다.

“난 술 안 마셔.”

하준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남자에게 보여줬다.

“그래?”
남은 맥주를 꿀꺽꿀꺽 마신 남자는 하준의 자켓을 잡고 뒤로 젖혔다. 그리고 혀로 하준의 목덜미를 훑었다. 하준이 능숙하게 옷을 벗자 남자도 자기 옷을 벗었다. 소파에 남자를 앉힌 하준이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자의 속옷을 벗겼다. 단단해진 길고 굵은 성기가 퉁하고 튕겨져 나왔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지. 잘 먹겠습니다.’

하준은 남자의 것을 입에 머금고 혀를 굴리다가 고개를 앞뒤로 움직였다.

"하읏…"

점점 더 커진 그의 성기가 하준의 입에 꽉 차자 하준은 만족스러운듯 그의 것을 핥고 빨았다.

"으읏..갈거같아."

남자가 바르르 몸을 떨면서 하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고, 남자의 것에서 분수처럼 하얀 액이 쏟아져 나와 하준의 어깨와 가슴을 적셨다. 하준이 미소지으며 지갑 안에서 콘돔을 꺼내 껍질을 찢어 남자의 것에 씌웠다.

-

"하아…하아…."

"읏…."

남자의 방에 있는 시계의 시침이 3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제 더는 못해…!"

남자의 위에서 남자의 것을 머금고 위아래로 움직이던 하준은 쑥 하고 빠져나가는 그것이 더이상 단단하지 않은 것을 보고 큰 손으로 그의 것을 잡았다.

"제발 이제 그만해줘. 난 더이상 못해…!"

남자가 하준에게 애원하며 기절할듯 숨을 거칠게 쉬었다. 하준은 곤란한듯 자신의 꼿꼿한 성기를 바라보다가 남자의 것을 놓아주고 욕실로 향했다.

'어쩔 수 없지. 혼자 빼야겠다."

샤워부스에 선 하준은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구멍에 넣고 쑤셨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것을 쥐고 흔들었다.

"하읏…하…읏…!"

하준의 정액이 욕실 벽에 튀었다.

‘누가 박아주면 좋겠다. 엄청 큰 걸로.’

-

샤워를 마친 하준이 나오자 남자는 죽은듯이 잠들어 있었다. 하준은 입고 온 옷을 찾아 입고서 집으로 가기 위해 방을 빠져나왔다. 거실 한켠에 아까는 보지 못한 굉장히 큰 사진 한장이 걸려있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까만 머리의 서구적 외모를 가진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하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아닌 그의 음경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본적없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저렇게 아름답고 큰걸 가진 사람과 한번만 자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준은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봄의 새벽 바람은 차가웠다. 하준은 옷을 여미며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하준은 하품을 하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살짝 불편한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며 풀어주고 집안으로 들어선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가지와 오이와 소시지가 있었다. 작은 생수병을 꺼내 물을 마신 그는 책상이 있는 방으로 가서 책장에서 노트를 꺼냈다.

노트의 표지에는 기록노트라고 적혀있었다. 그가 노트를 펼치자 저번 원나잇 상대의 음경이 그려져 있었다.

하준은 연필을 들고 그 옆에다가 오늘 잔 사람의 음경의 크기를 대충 원으로 표시했다. 한 이 정도? 아니, 좀 더 작았어. 그리고 더 자세한 요소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하준의 표정은 진지했다. 한참 그리던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노트를 덮었다.

‘아…피곤해.’

하준은 침대에 누워 알람을 맞췄다. 몇시간밖에 자지 못하겠지만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생각

하는 하준이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힘겹게 일어난 하준은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목덜미에 남은 키스마크가 보였다. 하준은 밴드를 꺼내 자국 위에 붙이고 얼마전에 산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고 은색 메탈 재질의 시계를 찼다.

핏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하준은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린 하준은 맞은편에 주차를 마친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다. 섹시한 곡선을 가진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한 눈에 봐도 비싸보이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한껏 꾸민 그는 하준과 눈이 마주치자 묵례하고 앞서 걸어갔다. 아몬드 오일, 레더, 캐시미어 노트의 포근한 가죽향이 강하게 풍겨져 왔다. 짧은 다리를 보완하기 위해 통이 살짝 넓은 바지에 발목을 노출시켜준것까지는 괜찮은데 넥타이 컬러가 너무 튀어서 균형이 안 맞는 느낌. 70점? 너무 후한가?

하준은 그에게 점수를 매기며 회사 로비로 들어섰다.

"하준씨.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하준에게 인사했다.

이진우 대리였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빌려입은 듯한 핏 안맞는 셔츠와 자켓, 긴 다리를 짧아보이게 만드는 바지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촌스럽네. 그래도 기본 뼈대때문에 50점 드립니다.

"이대리님, 안녕하세요."

하준이 진우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준씨, 오늘도 멋지네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기인 주희가 눈에 하트를 달고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주희씨, 고마워요."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요."

하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
.
.

-

"그런데 뭔가 공허하단 말이지…."

하준이 한숨을 쉬며 성현에게 말했다.

"낮에는 완벽한 직장인, 밤에는 화려한 주인공… 뭐가 문젠데?"

성현이 눈 앞의 야끼소바를 그릇에 덜며 물었다.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는거 아니야."

"너도 이제 섹스말고 사랑을 할 때가 된거지."

성현이 웃으면서 하준에게 말했다.

"너는 9년동안 한 사람 만나니까 좋냐?"

"응."

"그래…."

영혼없이 대답한 하준은 말없이 야끼소바를 먹는 성현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카운터를 바라봤다.

"여깄습니다."

진우가 비틀대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주고 있었다.

'이대리님이네? 혼자 마신건가?… 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했다던데 진짠가?… 불쌍하다.'

"왜 그래?"

하준이 어딘가를 계속해서 보고있자 성현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

하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찬 공기가 하준의 몸을 감쌌다. 주황빛 따뜻한 조명이 하준의 몸을 늘어지게 만들었다. 성현과 하준은 층층이 나무로 된 좌석에 앉았다. 뜨끈한 공기에 하준의 몸이 노곤해졌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가끔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하준은 성현과 휴일에 잠시나마 이렇게 피로를 푸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 좋다!"

성현이 양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개운한듯 말했다.

"너는 아직도 사우나하는게 그렇게 좋냐?"

하준이 그런 성현을 쳐다보며 물었다.

"응"

"취직 준비는 잘돼가냐?"

하준의 물음에 성현은 좀 짜증난다는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몰라. 나 너희 회사 들어갈까?"

"너 안 받아줘. 짜식아."

하준이 두 눈을 감고 팔짱을 낀채 말했다.

"야, 김하준. 그러지말고 다른 애들은 사람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던데 너는 그런 말 한번도 안 하잖아?"

성현이 말했다.

"나? 내 사수가 좋은말로하면 착하고 나쁜말로 하면 바보같아."

"뭐야, 좋은거야 나쁜거야."

"씨알도 안먹히는 변명 대면서 싫어하는 일 다 맡기는데 다 떠 맡아서 하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고 좀 불쌍해."

하준이 한쪽 눈썹을 찡그린채 안타깝다는 듯 답했다. 그리고 하준이 고개를 돌렸을때, 진우와 두 눈이 마주쳤다.

'이대리님?'

하준은 급하게 수건을 머리에 얹고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성현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야, 나가자."

"뭐야, 더 있어야 된다고."

하준이 성현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세웠다.

"빨리!"

"김하준! 왜 그러는데!"

성현이 큰 소리로 외치자 사우나실 안에 소리가 울려퍼졌다.

"내 이름 부르지마! 짜식아!"

하준이 쩔쩔매며 성현을 문 앞까지 끌어당기는데 성공했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우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대리님!"

놀란 하준이 진우를 번쩍 들어 안아올렸다. 그때 진우의 하체를 가리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준의 눈이 자연스레 진우의 아래로 향했다.

"!!!!!!!!!!!!"

그리고 하준은 보게 되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의 XX를. 그날 본 사진의 남자가 가진 그것과 견주어도 지지 않을만큼 아름답고 큰 XX를.

"야! 김하준! 빨리 안나가고 뭐해!"

하준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사우나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이대리님…!'

-

"이…이대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급하게 사우나실 밖으로 진우를 안고 뛰어나온 하준은 진우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눈이 진우의 그곳으로 향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모여들었다. 하준의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얼음물을 건네 주었다. 하준은 진우의 볼에 얼음물을 갖다대었다.

"이대리님!"

하준의 목소리에 진우가 눈을 조금씩 떴다.

"어떻게 된… 제가 쓰러졌나요?"

진우가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움직여 주변을 살폈다.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쓰러지셨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준의 눈은 진우의 그곳을 향해있다 겨우겨우 진우의 얼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제 과음을 좀 했더니…. 괜찮아요."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드릴게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하준씨."

몸을 일으키는 진우에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다. 진우는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비척비척 라커룸 사이로 걸어갔다.

"야, 아는 사람이야?"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성현이 하준에게 물었다.

"응…. 내 사수."

"뭐? 방금 말한 그 불쌍하다는?"

성현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놀라며 말했다.

"어……."

"그럼 사수 앞에서 앞담을 한거야? 대박."

"조용히 해라."

하준은 진우가 사라질때까지 한참을 서서 보고있었다. 하준의 머릿속에서 진우의 XX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었다.

-

"하아…."

큰 손으로 마른세수를 한번 한 하준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신의 기록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한장한장 넘기면서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런 XX는 없었어!'

하준은 노트의 빈 페이지를 매만지며 입맛을 다셨다.

'여기에 그리고 싶다…!!!!!!!!!!!!!'

하…. 그치만 그 사람은 내 상사인걸. 회사 사람하고 엮이면 안돼! 하준은 쾅 소리가 날만큼 거칠게 노트를 닫았다.

-

"하준씨."

하준이 부스스 잠에서 깨서 앞을 보니 눈 앞에 진우가 있었다.

"아니, 이대리님?"

촌스러운 패턴의 넥타이, 핏이 안 맞는 회색 정장에 흰 양말을 신고 있는걸 보니 진우가 맞았다.

"하준씨, 저번에 내 XX 봤죠?"

"네…?"

하준이 놀라서 되물었다.

"봤잖아요. 저번에 사우나실에서."

진우가 살짝 미소지으며 하준에게 말했다.

"아…아니… 그건 수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먹고싶죠?"

"네?!?!?!!!"

진우가 갑자기 자신의 벨트를 풀며 하준의 두 손을 묶었다. 그리고 하준을 무릎꿇게 만들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하준이 자기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진우가 속옷을 내리자 진우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XX가 하준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가 그것을 하준의 입술에 갖다대었다.

"뭐해요. 안 빨고."

이게 웬 횡재냐! 잘 먹겠습니다. 흑흑. 제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하준은 잠깐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하며 턱 근육을 푸는 운동을 하고 진우의 그것을 머금었다. 빨수록 단단하고 커지는 그것을 고개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하준은 정성스럽게 빨았다. 턱 빠질 것 같아. 진우가 하체를 앞 뒤로 움직이며 하준의 입 안을 들락날락했다.

"하아…하아…."

진우가 하준의 어깨를 잡더니 부르르떨며 하준의 입 안에 사정했다. 하얀 액이 하준의 입 안에 가득찼다. 진우가 하준의 바지 버클을 풀어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더니 하준을 책상

위로 눕혔다. 그리고 하준의 입안에 우왁스럽게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 그러더니 하준의 구멍에 액을 바르고 곧바로 자신의 것을 쑤욱하고 집어넣었다.

"으읏…!"

"이건 내 앞에서 날 욕한 벌이야."

그리고 마구 사정없이 빠르게 하준의 안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벌…벌이 너무 달콤해…!'

"아앗…!"

지잉-
지잉-
지잉-

지잉하고 울리는 휴대폰 진동소리가 하준의 의식을 건드리자 하준은 꿈에서 깼다. 뭐야, 꿈?!

"…….여보세요?"

[야, 너 저녁에 뭐할거야?]

"……. 정성현, 너는 나 말고 친구가 없냐?"

[이 새끼 왜 또 지랄이야!]

"끊어!"

하……. 어쩐지. 기록노트를 머리에 베고 잠든 하준이었다. 하준은 두 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었다.

-

월요일 아침, 하준은 지하주차장에서 진우를 마주쳤다. 진우는 하얀색 2019년형 쏭나타에서

내렸다. 차 앞유리로 룸미러에 걸린 연꽃모양 염주줄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오늘도 역시나 촌스러운 배색의 넥타이. 품이 남는 자켓과 바지. 그런데 저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통탄할 일이로다.

"안녕하세요. 이대리님."

"안녕하세요. 하준씨."

하준은 하루종일 진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넥타이에 남은 커피 자국, 저건 저번에 하고 왔을때부터 있었던 자국인데…! 일년내내 똑같은 크기인 마리모의 물을 매일 갈아주고 있어! 저건 가짜라구요! 왜 컵홀더 없이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옷에다 물을 다 닦냐고! 복사하면서 90년대 락발라드 흥얼거리지 말라구요! 정말 최악이야!'

하준은 저도 모르게 종이 위에 그의 음경 모양을 그려놓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래,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말자!'

"하준씨!"

"네!"

진우가 하준에게 다가왔다.

"전에 말한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냈길래… 지금 보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하준의 눈이 자꾸 진우의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하준씨 듣고 있어요?"

"네?"

"....."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좀."

하준이 자기 뺨을 때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준은 차가운 물을 틀어 세수를 했다. 정신 좀 차리자. 김하준! 하준은 변기 앞으로 가서 지퍼를 내렸다. 그런데 곧 이어 진우가 들어왔고 변기 앞에서서 지퍼를 내리려 했다.

"으악!"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하준에 진우가 놀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하준은 빠르게 화장실을 나왔다.

-

"하준씨, 그래서 예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준의 앞에서 주희가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준의 눈은 멀리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진우를 쫓았다.

'왜 하필 오늘 바나나가 통으로 나왔지?'

하준은 바나나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봤다.

"다 먹었으면 가요. 하준씨."

"네."

하준이 식기를 정리하고 나갈때 자신의 발 밑에 있는 바나나 껍질을 보지 못하고 밟아버렸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누군가를 깔고 넘어졌다.

"으악! 괜찮으세요?"

하준이 밑에 사람을 깐 채 버둥거렸다.

"네. 괜찮긴한데 일어나주셨음 좋겠는데……."

"이대리님?"

'그럼 지금……. 닿은거야?'

하준이 일어나면서 바나나 껍질을 한번 더 밟고 진우의 앞을 향해 한번 더 넘어졌다.

'또 닿았어!'

"으악! 너무 죄송합니다!"

하준이 후다닥 일어났고 진우의 손을 잡고 진우를 일으켜줬다.

"괜찮아요."

-

"아악!!!!!!!!!!!!!!!!!!!"

하준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차 핸들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망했다. 오늘 하루 완전 망해버렸다. 요즘 너무 굶주렸나봐…!'

하준은 까만 바지에 까만 셔츠를 입고 청자켓을 입고 클럽으로 향했다. 익숙하게 클럽으로 들어간 하준은 오늘의 먹잇감을 물색하며 홀로 들어가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머리를 샛노랗게 금발로 염색한 하얀 피부의 남자와 춤을 추고 있을 때, 뒤에서 은근한 손길로 하준을 만지는 이가 있었다. 하준이 슬쩍 뒤돌아보자 아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몰랐다. 하준은 그를

대물남이라고 불렀다. 그래. 오늘은 너다.

대물남과 하준은 대물남의 집에 들어가자 마자 입술을 뜯어먹을 듯 키스를 나눴다.

현관에는 거대한 산 페드로 선인장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남자는 하준의 머리를 꾹 눌러 자기 바지 앞섶에 갖다대었다. 하준은 바지 위에 입술을 갖다 대고 그것의 윤곽을 따라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풀어 속옷을 내렸다. 그의 것이 튀어나와 하준의 입술에 닿았다.

그런데 하준은 뭔가 의아한듯 한참 그것을 쳐다보았다. 남자가 그런 하준을 보다가 자기 물건을 하준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하준이 그것을 입에 넣고 혀를 굴렸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빨다가 갑자기 그것을 입에서 뺐다.

"왜 그래? 무슨 문제있어?"

남자가 하준에게 물었다.

"아니…원래 이렇게 작았나?"

하준이 순수하게 물었다.

"뭐? 작다고?"

대물남이 얼빠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이 정도면 크지. 신경 쓰지마."

하준이 다시 남자의 물건을 입에 머금으려하자 인상을 찌푸린 남자가 하준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당장 나가!"

남자는 문을 열고 하준을 밀었다. 하준은 순식간에 밖으로 떠밀렸고 문은 닫혔다.

‘이게 다 이진우때문이야…!’

-

하준은 성현과 가는 사우나를 혼자 가서 기웃거렸다.

“하준씨?”

“부장님?”

여기 무슨 마가 꼈나… 하준은 부장님을 만나 팔자에도 없는 설교를 한 시간동안 들었다.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지엽 차장님께 감사드리며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건배합니다!”

“건배~”

장민혁 사원의 건배사에 팀원들이 모두 건배를 외쳤다. 하준이 건배를 외치는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하준이 앉은 자리의 대각선에 앉아있었다. 진우의 오른쪽에 앉은 민혁이 열심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진우의 왼쪽에 앉아있던 신대수 과장이 진우의 잔에 소주를 채웠다.

“자, 마시자구.”

신대수 과장이 잔을 들어 소주를 마시자 진우도 고개를 돌려 잔을 비웠다. 진우가 잔을 비우기가 무섭게 신대수 과장이 진우의 잔을 채웠다.

“자, 들자구.”

진우가 신대수 과장을 따라 또 잔을 비웠다.

'신과장 또 저러네.'

"하준씨는 운동해요?"

하준의 옆에 앉아있던 주희가 물었다.

"네."

하준이 대답했다.

"무슨 운동이요?"

주희가 웃으며 되물었다.

"저는 격투기 좋아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요즘 필라테스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하준은 연거푸 술을 받아 마시는 진우를 보느라고 주희의 말을 잘 듣지 못했다.

접시 위 가득하던 음식과 고기가 줄어들고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을때 분위기는 무르익어 웃음소리와 높은 소리가 교차하며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준씨. 술 한잔 받으라구."

눈이 반쯤 풀리고 얼굴이 빨개진 신대수 과장이 하준의 거꾸로 세워져 있던 소주잔을 바로 세우며 잔에 소주를 채우려고 했다.

'또 시작이네.'

하준이 대외용 미소를 지으며 거절의사를 밝히려할때 진우가 자신의 잔을 내밀었다.

"이 친구는 술 못마십니다. 저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술에 반쯤 취한듯 행동이 느려진 진우가 눈을 꿈뻑이며 말했다. 신대수 과장은 그런 진우에게 역시 자네밖에 없다며 웃으면서 진우의 잔에 술을 채웠다. 신대수 과장은 취하면 하준이 술을 못먹는다는걸 잊고 항상 하준에게 권했고 그때마다 진우가 대신 술을 먹었다.

'저 바보.'

-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살펴 들어가십시오."

쌀쌀한 밤공기 속에서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음식점 간판 앞에 하준의 팀원들이 모여 서서 인사하며 저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하준이 택시를 잡아 주희를 타게 했다.

"고마워요. 하준씨. 내일 봐요."

하준이 웃으며 인사했다.

민혁이 인사불성이 된 진우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나가 손을 흔들었다. 하준은 진우가 취한게 제 탓인 것 같아 진우의 남은 팔 한쪽을 붙잡고 민혁에게 말했다.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알았어. 잘 가라."

민혁이 진우를 하준에게 맡기고 인사했다. 까만색 택시가 하준과 진우 앞에 섰다. 하준은 문을 열고 진우를 밀어 넣었고 자신도 탔다.

"대리님, 주소 말해주세요. 대리님!"

"……. 00동 00오피스텔…"

"거기로 가주세요."

진우는 곧바로 머리를 창문에 기대고 잠에 들었다. 진우의 파란 넥타이가 조여져 있는 모습이 영 불편해보였다. 하준은 진우의 넥타이를 조금 풀고 와이셔츠 첫번째 단추를 풀어주었다. 택시 안이 술냄새로 진동을 했다. 하준은 자신 쪽 창문을 활짝 내리고 새근새근 잠든 진우를 쳐다봤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가 멈추자 하준이 카드를 기사에게 주었다.

"이대리님, 다 왔어요."

하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진우를 택시에서 끌어 내렸다. 진우의 왼쪽 팔을 어깨에 걸친 하준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숫자버튼을 누르려다 멈춘 하준이 말했다.

"몇 층이에요? 대리님!"

하준의 고성에 진우가 살짝 눈을 떴다.

"…하준씨?"

"네. 저 김하준입니다."

'계속 이러면 확 잡아먹는 수가 있어요!'

"하준씨…."

"네. 몇 층이에요?"

"…내가 불쌍합니까?"

진우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말했다.

"네……?"

"내가 답답하고…불쌍하다면서요."

하준은 지난날 사우나실에서 했던 얘기를 상기시키며 아차했다. 들었구나. 진우가 비틀거리면서 숫자 8을 눌렀다.

"……."

"……."

둘은 정적속에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가 휘청거리며 먼저 내렸다. 하준이 그런 진우의 허리를 잡고 진우가 가는 쪽으로 따라 걸었다. 집 앞에 도착한 진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삐삐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나왔다.

"왔어?"

'뭐야, 누구지?'

실크 슬립 원피스 잠옷에 카디건을 걸친 여자가 하준을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취한 진우를 데려갔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하준은 쾅하고 닫힌 문을 바라봤다.

'……아내분?'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한숨을 한번 내쉰 하준은 얼빠진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

[…내가 불쌍합니까?]

[내가 답답하고 불쌍하다면서요…]

‘아악! 시간을 돌리고 싶다!!!’

침대에 누운 하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몸부림쳤다.

‘사과해야겠지…?’

-

다음날 출근한 하준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진우에게 다가갔다.

“이대리님, 저….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아, 하준씨. 어제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진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지면서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어떠세요?”

“식사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진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갤 끄덕였다.

“그래요.”

-

진우와 하준이 들어간 곳은 전체적으로 갈색과 나무 결로 벽과 테이블을 장식한 정갈한 일식집이었다. 저녁시간이라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진우와 하준은 아직 비어있는 테이블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준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컵에 물을 따랐다.

"……."

"……."

하준은 괜히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되게 어색하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음식점 직원이 우동과 돈가스를 양손에 들고 하준의 테이블로 와서 돈가스를 놓다가 진우의 바지(중요부위)에 돈가스와 돈가스 소스를 흘리고 말았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물수건을 가져와 허둥지둥 진우의 그곳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 부러워라…! 아니 이게 아니고…!'

"괜찮으세요 이대리님?"

"네. 괜찮습니다."

진우가 직원의 물수건을 건네받아 바지를 닦으면서 직원에게 말했다. 바지 앞섶이 소스와 기름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져있었다.

"돈가스는 금방 다시 해드리고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직원이 쩔쩔매며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진우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어보이며 말했다.

-

“저기… 저번에 제가 한 말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말이요?”

“저번에 저기 제가… 부..불쌍하고… 답답하다고 했던거요.”

진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아… 저야말로 어제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하준이 손가락을 비비 꼬며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닙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막 화내셔도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화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체 왜 화를 안내시는거예요?!!!”

하준이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가 모여드는 주변 시선에 헛기침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럼 내일 봐요. 하준씨.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진우가 먼저 자리를 떴다.

'아악!!! 내가 왜 그랬지!!'

하준은 머리를 숙이고 웅크리면서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때 하준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진우의 휴대폰이 들어왔다.

'어! 휴대폰 두고 가셨다!'

하준이 진우의 휴대폰을 들고 급하게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주변을 둘러봐도 진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흠…내일 회사에서 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영훈'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다.

'중요한 전화면 어쩌지?'

하준은 고민하다가 택시를 잡아 진우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다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준이 택시에서 내리자 저멀리 진우가 보였다.

"이대리님!"

그런데 갑자기 까만 승합차에서 까만 옷을 입은 장정들이 내리더니 진우의 양팔을 붙잡고 차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다.

"이…이대리님!"

'어..어떡하지!'

하준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배달 중 정차한 열쇠 꽂힌 오토바이가 한 대 보였다. 하준은 넥타이를 푸르고 윗 단추를 하나 풀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앉아 엑셀을 당겼다.

하준은 앞서가는 승합차를 열심히 쫓아갔다. 승합차는 20분정도 달리다 으슥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공사가 중단된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건물이 있는 어느 폐허였다. 승합차에서 3명의 장정이 진우와 내렸다. 진우는 두 손이 묶인채 머리에 검은 천이 씌워진 상태였다. 하준은 조용히 오토바이를 멀리에 세우고 그들을 따라갔다.

"앉아!"

건물 안으로 진우를 끌고 간 그들은 어떤 여자 앞에 진우를 무릎 꿇게 했다. 하준은 쌓여있는 공사장 잔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상황을 지켜봤다. 남자들은 진우의 머리에 씌워놓은 천을 벗겼다. 그런데 진우의 얼굴을 본 여자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이 사람 아니예요!"

"뭐라고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며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할일을 한거니까 돈 주쇼!"

"아니 일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그때 덩치 두명이 여자를 위협하듯 쇠파이프를 들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에이, 모르겠다!'

하준이 빠르게 뛰어 그들에게 다가가가 발차기를 하며 덩치 한명을 쓰러뜨렸다. 그러자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남자가 하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준은 빠르게 뒷걸음질치며 그것을 피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 남자 턱을 가격했고 남자가 쓰러졌다.

그들 중 두목처럼 보이는 남자가 하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준이 뺨을 맞고 비틀거렸다. 하준은 몸을 날려 남자를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얼굴을 쳤다. 그때 처음에 넘어졌던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하준을 향해 달려왔다.

"하준씨!"

진우가 하준을 부름과 동시에 하준이 뒤를 돌아봤고 쇠파이프를 피했다. 그리고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씨발, 뭐야!"

장정들이 허겁지겁 도망쳤다.

하준이 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다.

"이대리님!"

하준이 진우의 두 손을 묶은 밧줄을 힘겹게 풀었다. 곧 이어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멈췄다.

"어플이예요."

한쪽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하준과 진우가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겁만 주려던거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 다친데는 없으세요?"

진우가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며 여자에게 물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실소를 흘렸다. 뒤늦게 손이 벌벌 떨렸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가 말했다.

-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진우와 하준이 택시를 탔다.

"하준씨 근데 어떻게 알고 온거예요?"

하준이 진우에게 진우 휴대폰을 건넸다.

"휴대폰 놓고가셨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하준의 멍든 눈가와 찢어진 입가를 보고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가서 상처 치료하고 가요."

"괜찮습니다. 집에는 아내분도 계시고… 편의점 가서 사면 돼요."

하준이 입가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 이혼했어요…."

하준이 진우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

"그치만… 저번에 아내분이 계셨는데?"

하준이 눈을 깜빡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찾아오는거예요."

진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다. 하준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 눈이 반짝거렸다.

"가요. 대리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진우의 오피스텔로 도착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준이 문 앞에서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준은 모르는 사람 집에 자주 드나들곤 했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떨리고 조심스러웠다.

"가방이랑 외투 편한 곳에 놔요."

진우는 본인의 가방과 외투를 현관문 쪽 바닥에 놓았다. 내부는 원룸형 구조로 되어있어서 한눈에 집 전체가 보였다. 침대와 소파를 제외하고 식탁이나 책상같은 가구는 없었고 박스들이 한켠에 쌓여있었다.

"집이 좀 어수선하죠? 이사한지 얼마 안돼서…."

진우가 머쓱한듯 목덜미를 매만지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먼저 씻을래요?"

진우가 물었다.

"네? 아. 네."

하준은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깔끔히 정돈된 모습이었다. 하준은 놓여져있는 올인원 워시로 아까 공사장에서 굴러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머리에 묻은 돌가루 같은 것들이 물에 쓸려 내려갔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씻는것도 하준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진우의 집에서 씻고 있다는 사실이 하준을 묘하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샤워를 마친 하준이 욕실을 나오자 진우가 놓은 깨끗한 티셔츠와 바지가 보였다. 옷을 입은 하준이 소파쪽으로 가자 넋놓고 있던 진우가 몸을 일으켰다.

"씻었어요?"

"네."

이상한 기분이 든 하준이 멋쩍게 대답했다. 진우는 박스를 뒤져 상비약이 든 상자를 꺼냈다. 하준은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그런 진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발라요."

진우가 연고를 꺼내 하준에게 건넸다.

"거울 있나요?"

연고를 받아든 하준이 물었다.

"아……. 거울이 신발장에 붙어있는데… 내가 발라줄게요."

진우가 하준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연고를 손가락에 짜서 하준의 입가에 발라주었다.

"……."

"……."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하준의 시선은 자꾸만 저녁 밥을 먹을 때 얼룩덜룩해진 진우의 바지 앞섶으로 향했다.

"늦었으니까 자고 가요. 하준씨."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침대에서 자요. 내가 소파에서 잘테니까."

"……네."

진우가 연고를 짜 하준 눈가의 멍에도 펴발랐다. 진우의 귀 끝이 빨개져 있었다.

"저 씻고 올테니까 먼저 자요."

-

하준이 남의 집에서 섹스를 안하고 그냥 자는건 19살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으니 진우에게서 평소에 나는 스킨 냄새가 났다. 씻고 나온 진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눈 감고 있는 하준을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흐흠…흐흐흐흐흐…하하하…!"

그런데 갑자기 진우가 빵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세요?"

하준이 놀라 일어나며 물었다.

"아니, 갑자기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현실감 없어서…."

그말에 하준도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왜 경찰을 안부르고 따라온거예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아… 경찰…!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큭큭큭큭…"

진우와 하준이 한동안 실소와 껄껄거림을 반복했다.
"고마워요. 하준씨. 하준씨 덕분에 살았어요."

"아무일 없어 다행이예요…"

"잘자요."

"주무십시오."

둘은 입가에 미소를 띈채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하준은 꿈속에서 진우 XX와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를 하고 있었다. 푸른 들판에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진 낙원같은 곳이었다.

"이대리님!"

"하준씨!"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둘은 손을 잡고 웃으며 둥글게 돌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갑자기 까만 복면을 쓴 납치범들이 진우 XX를 납치해갔다. 공간은 순식간에 낡은 건물이 있는 폐허로 바뀌었다. 그리고 납치범들이 진우 XX에 총을 겨눴다.

'안돼!'

하준은 꿈에서 깼다. 하준은 진우가 누워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살짝 쳐진 부드러운 눈매에 높고 섬세한 콧대가 보였다.

'이혼을 했다 이거지…?'

하준이 턱 밑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이런 인간 문화재를 그냥 놔두는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 한번 꼬셔보자.'

하준이 다짐했다.

-

'근데 어떻게 꼬시지?'

하준은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지난날 클럽에서 몸을 부비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이며 집이나 호텔로 직행하던 그의 삶을 돌아봤다. 하준은 성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정성현! 너 찬우형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

[다짜고짜 뭔 소리야?]

"빨리 말해봐."

[일단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나한테 호감이 있나 없나 살폈지.]

'오호. 그래. 호감. 호감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

하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진우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리님, 오늘 저랑 점심 같이 하실래요?"

진우가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점심시간, 진우와 하준은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하준은 일부러 밥 한톨을 입가에 묻혔다.

'이러면 떼주겠지?'

진우가 국을 뜨다가 하준을 쳐다봤다.

'이제 떼주겠지?'

그런데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뜬 국을 먹고 밥을 퍼서 먹었다.

'뭐지? 안 묻었나?'

하준은 밥 한톨을 더 묻혔다. 그리고 일부러 진우에게 말을 걸었다.

"된장찌개 좋아하시나봐요."

진우가 하준을 빤히 쳐다보다 말했다.

"네. 된장찌개 좋아해요."

'뭐지?'

"야! 김하준! 너 꼴이 그게 뭐냐? 푸흡."

하준의 옆을 지나가던 민혁이 하준을 보더니 깔깔거리며 말했다. 하준이 그런 민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손으로 입가를 훔쳐 밥 알을 떼어냈다.

'실패다….'

-

하준은 진우가 걸어가고 있는 틈을 타 일부러 종이 문서를 수십장 쌓아 놓고 걸어가다 떨어뜨렸다.

"어이쿠!"

"괜찮아요? 하준씨?"

진우와 하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를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 스치기에 성공했다. 그런데 진우는 종이 줍기에 몰두해 열심히 종이만 줍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

하준은 퇴근 시간, 일부러 진우가 야근하는데 일이 많은척 기다렸다가 진우가 퇴근하려 짐을 쌀 때 같이 퇴근했다.

“이대리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 좀 태워다 주세요.”

하준이 말했다.

“그래요.”

하준과 진우는 지하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하준은 진우의 쏭나타 조수석에 탔다. 차에 타자 진우에게서 나는 스킨 냄새가 강하게 났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진우는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신호가 켜졌는데 출발하지 않는 차에도 별말 없이 기다렸다.

하준의 눈에 룸미러 밑에 달랑거리며 흔들리는 염주줄에 달린 연꽃모양 조각이 들어왔다.

“불교 믿으세요?”

진우가 장식을 흘끔 쳐다보며 말했다.

“아, 이건 선물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진우가 뜸을 들이며 말했다.

“전 아내요….”

“아….네….”

하준은 괜히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하준의 집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말이 없었다.

“여긴가요?”

“네. 혹시… 야식 같이 드실래요?”

진우가 시계를 보더니 대답했다.

"오늘은 늦어서. 나중에 먹어요."

"넵.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하준이 차 문을 닫자 진우가 출발했다. 하준은 멀어지는 진우의 차 뒷모습을 바라봤다.

'망…망해버렸다….'

하준이 한숨을 푹 쉬며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

한편 진우는 귓불이 붉어지고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납치당했을때 싸우던 하준의 얼굴과 몸짓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준의 표정은 다부졌고 몸짓은 날렵하고 섹시했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살며시 미소지으며 라디오를 켰다.

[오늘은 사랑에 빠진 한 청취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그치만… 나 같은게 무슨…'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

'사람 꼬시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준은 집에 들어와 넥타이를 풀어 소파 위에 던졌다. 그리고 점프해서 소파 위에 털썩 누웠다. 하준은 휴대폰을 켜 까똑에 들어갔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내려가 진우를 찾았다. 프사는 무난한 풍경사진이었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 분홍색 꽃나무를 날씨 좋은날 찍은 것 같았다.

‘이진우….’

하준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우와의 채팅방에 들어갔다.

[대리님. 잘 들어가셨나요?]

하준은 1이 없어지길 기다리다 휴대폰을 끄고 씻으러 욕실로 향했다. 그러다 울리는 까똑소리에 바로 달려가 휴대폰을 켰다.

[네]

‘무지 단답형이네.’

그리고 곧이어 까똑이 하나 더 왔다.

[하준씨도요?]

하준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미소지었다.

[네. 그럼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하준은 자기도 모르게 90년대 락발라드를 흥얼거리면서 욕실로 들어갔다.

-

다음날 하준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진우를 봤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대리님!”

진우가 흠칫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하준씨."

진우가 미소지으며 인사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하준도 엘리베이터에 탔다. 진우 머리가 코 앞에 있었다.

'근데… 어제 입었던 옷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미묘하게 스킨냄새가 바뀌었어….설마… 원나잇?'

하준은 그날부터 진우를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같은 옷을 2,3일씩 입고 오는 날이 생겼으며, 하품을 하는 횟수가 늘었고 회의 중에도 졸음을 참느라 힘들어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푸바오 뺨치게 점점 더 커져갔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하면서 살짝 물어봐야겠다.'

하준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게 보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갔다.

"이대리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

점심을 먹고 진우를 테라스가 있는 야외 휴게공간에 데려온 하준은 슬며시 진우에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가 퀭한 얼굴에 마른세수를 하며 애써 미소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하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묻자 진우가 한숨을 내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내가 자꾸 집으로 와서… 오지 말랬는데도 자꾸 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주무시는데요?"

"찜질방이요…."

하준이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압니다…. 저 답답한거…."

하준은 이 답답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었다.

'이건 기회야!'

"그럼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하준이 진우의 두 손을 잡고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조만간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진우가 고개를 휘저으며 대답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하준이 애절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어떻게…."

"대리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진우가 하준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스!'

-

퇴근시간, 진우가 일을 마칠때까지 기다린 하준은 자신의 차 조수석에 진우를 태우고 집으로 출발했다.

'이게 웬 떡이냐…!'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집 안에 들어온 진우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저는 이렇게 각을 안 맞추면 참기가 힘들어서요. 아, 이대리님은 편하게 지내십시오. 정리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준이 손님용 슬리퍼를 꺼내 진우가 신을 수 있게 바닥에 두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준이 집에 들어선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이제 넌 독안에 든 쥐다…!'

-

"대리님 먼저 씻으세요. 저는 대리님 지내실 방 정리 좀 할게요."

하준은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기를 돌렸다. 그리고 성현이 와서 잘때 쓰곤 하는 파란색과 회색 체크 문양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

"저기, 하준씨 혹시 옷 좀 줄 수 있어요?"

하체에 하얀 수건만 걸친 진우가 하준의 눈 앞으로 걸어왔다. 까만 젖은 머리에서 물이 흘러 가슴골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준의 시선이 그 물줄기를 따라 아래로 향했다. 꿀꺽.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크게 삼켰다.

"하…하준씨?"

진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는 하준을 불렀다. 그제서야 하준은 정신을 차리고 옷이 있는 방으로 가서 하얀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꺼내 진우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요. 대리님."

하준이 목덜미를 매만지며 멋쩍게 웃었다. 진우가 웃으며 옷을 건네 받았다.

"고마워요."

'웃는건 되게 근사하네.'

하준이 진우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럼 나도 매력 발산 좀 해볼까?'

"저도 씻고 나올게요."

하준은 바디워시로 온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고 일부러 물을 톡톡 두드려 닦아 촉촉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수건을 골반이 보이게 아래에 걸치고서 욕실을 나섰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의 시선이 자연스레 하준에게 향했다.

'나 쫌 섹시한듯?'

하준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진우가 바로 시선을 내리더니 소파에서 일어났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하준이 머리를 벅벅 긁었다.

-

다음날 일어난 하준은 간단하게 식빵을 굽고 소시지와 가지를 익혀 그릇 위에 올렸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데워서 썰어 옆에 놨다.

"아침까지… 미안해서 어떡하죠?"

세수를 하고 나온 진우가 식탁 위 음식을 보더니 말했다.

"아니에요. 저 먹던대로 해봤는데 입 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제가 아침할게요."

진우가 웃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 포크를 들었다. 하준의 가슴께가 이상하게 간질거리는 느낌이었다.

"…네. 그리고 정장은 대리님 맞으실것 같은걸로 제가 골라놨어요."

-

하준은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쪽에 서서 진우를 기다렸다. 하준의 정장을 입은 진우가 문 밖으로 나왔다. 진한 회색 컬러의 자켓과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푸른빛이 도는 회색 넥타이였다.

'!!!!!!!!!!'

어깨와 허리, 그리고 바지 밑단이 진우에게 맞춘것처럼 잘 맞았다. 하준이 진우를 넋 놓고 바라봤다. 진우의 귀 끝이 빨개져 있었다.

"고마워요. 옷도 빌려주고.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아…아닙니다. 가…가시죠…!"

두 사람은 하준의 차를 타고 같이 출근했다. 아침 바람이 선선하고 온화하게 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최성미 과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같이 출근하는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늘따라 진우씨 너무 멋있네요. 둘이 옷도 비슷하고. 부부같다. 부부."

진우의 귓불이 붉어졌다. 하준은 다시 한번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거리는 경험을 했다.

'부부..라니..'

-

하준과 진우가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매일같이 클럽을 드나들던 하준은 진우가 집에 있는 덕에 강제수절하게 됐지만 하준은 생각했다.

'더 큰 것을 위한 희생이다…!'

아침,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준은 진우가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보다 믹스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하준은 휴게실에서 팔을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인사팀 수경이 하준에게 다가왔다.

"하준씨!"

"어! 수경씨!"

하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저기… 하준씨… 디자인팀에 미나 알죠? 미나가 하준씨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물어서요."

"제 연락처요?"

"그게.. 미나가 하준씨가 맘에 드나봐요."

수경이 낮은 소리로 속닥거리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저는 미나씨 잘 모르기도 하고. 연락처 드리긴 좀 어렵겠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수경이 난처한 낯빛으로 얘기하며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진우가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

집으로 돌아가는길 하준의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솔직할 수 있어요?"

"네?"

"미안해요. 아까 의도치 않게 듣게 됐어요."

하준이 눈알을 굴리며 낮에 있던 일을 상기했다.

"아… 마음에도 없는데 관심 있는척하는게 더 나쁘니까… 상대방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알죠.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군요."

진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사람이 고백하면 아무리 대리님이라도 거절 할 수 있을걸요?"

"……. 그런가요? 저는 어렵던데…"

"에이, 설마 결혼도 그래서 했다 그런건 아니죠? 하하."

하준이 가볍게 웃으며 농담조로 말했다.

"……."

진우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니죠?!"

"……."

'이 사람 생각보다 더 심각하잖아!'

"오늘부터 특훈입니다! 대리님!

하준은 결심했다. 진우의 바보같이 착해빠진 면을 반드시 제가 고쳐주겠다고.

-

"여기 좀 앉아보세요. 대리님."

소파에 진우를 앉힌 하준이 털이 복슬한 곰인형을 들고 말투를 경망스럽게 바꾸고 말했다.

"대리님, 저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거 깜빡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요. 일찍 가봐야할거 같은데 이거 끝나고 가면 저 큰일나요!"

"강대리랑 진짜 똑같네요"

진우가 놀라며 말했다.

"네. 제가 원래 성대모사를 좀 잘해요. 아니, 이거 해주실수있죠?"

"아, 제가 할테니 들어가보세요."

하준이 고개를 저으며 검지손가락을 들어 함께 저었다.

"그게 아니죠! 저도 지금 해야할 일이 있어서 어렵겠네요 라던지 저도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거 하나 안하고 뭐했어요? 라던지!"

진우가 난감한듯 얼굴을 붉히며 목덜미를 매만졌다. 크흠하고 한번 헛기침을 한 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개미만한 목소리 말고 크게요!"

하준이 다그쳤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진우가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 처음이니까요."

-

다음날 회사에서 강대리는 어김없이 진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하준이 그런 강대리를 눈으로 좇았다.

"저… 이대리님, 오늘 제가…"

진우가 하준을 흘끔 쳐다봤다. 하준이 검지손가락을 교차해서 엑스표시를 만들어 보였다.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진우가 쩔쩔매며 강대리와 하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준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입모양으로 '안된다고 하세요. 안돼! 안돼!'라고 벙긋거리며.

"그래서 말인데…"

"안돼요!"

진우가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진우를 쳐다봤다.

"네?"

강대리가 크게 당황하며 되물었다. 진우가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야..약속이 있어요!"

하준이 그런 진우를 보고 슬며시 미소지었다.

"알았어요."

강대리가 먹잇감을 놓친 하이에나처럼 입맛을 다시며 자리로 돌아갔다. 진우와 하준의 눈이 마주쳤고, 하준은 조용히 엄지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

진우가 하준의 집에서 지낸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갔다. 주말에 함께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정장을 드라이클리닝 맡긴 두 사람이었다.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조수석에 앉은 진우가 운전하고 있는 하준에게 말했다.

"약속이요?"

"오래된 친구인데 저녁에 술 먹자고 해서요."

"네. 알았어요."

자연스레 저녁 스케줄을 공유하고 보니 하준의 기분이 묘했다.

'방금 뭐지?'

-

진우는 맥주잔과 기본 안주로 나온 과자를 앞에 두고 시계를 보고 있었다. 약속시간이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친구는 오지 않고 있었다. 진우가 맥주잔을 거의 다 비워갈 쯤에 영훈이 나타났다.

"야, 오래 기다렸냐?"

영훈이 진우의 등을 치며 말했다. 진우는 목덜미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아니야."

영훈은 자리에 앉아 직원에게 맥주와 안주거리를 주문했다.

"어떻게 지냈냐?"

영훈이 말했다.

"뭐… 회사 다니고… 늘 비슷하지 뭐."

진우가 과자를 몇개 집어 입안에 넣었다. 정적이 이어졌다.

"나는 안 물어봐?"

영훈이 눈썹을 까딱이며 물었다.

"…너는?"

"너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거 아니지?"

영훈이 낯빛을 어둡게 바꾸며 진우에게 말했다.

"……."

진우가 말없이 맥주를 들이켰다.

"내가 무릎꿇고 빌기까지 했잖아."

진우가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우리 친구로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런 일때문에 우리가 안보고 살 순 없잖아."

영훈이 절절한 말투로 진우에게 말했다.

"그거 말인데… 사실 나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야! 너 이렇게 속이 좁았어? 나도 화났어. 따지고보면 내가 걔를 먼저 좋아했는데 니가 홀랑 결혼해버렸잖아!"

영훈이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을 손으로 쾅 쳤다.

"……."

"그리고 이제는 끝났어. 근데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 되겠냐?"

진우가 한숨을 푹 쉬었다.

-

하준은 소파에 누워 스파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무감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키스나 했으면 좋겠다….'

그때 진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하준이 몸을 일으켜 진우에게 다가갔다. 술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진우의 걸음이 비틀거렸다.

"아니, 얼마나 드신거예요."

하준이 진우의 허리를 잡아 소파에 앉게 도와줬다.

"하준씨…. 정말로 내가 나쁜걸까요?"

"네?"

하준이 진우의 외투를 벗겨주며 물었다.

"화가나요…. 근데 미안하기도 해요…."

"대체 무슨 말인지…"

진우가 말끝을 흐리더니 하준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기댔다.

"내가 나쁜게 아니라고 해줘요…."

하준이 진우를 살짝 껴안으며 토닥였다.

"대리님이 나쁜게 아니에요…."

진우는 하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하준은 진우의 조여져 있는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

다음날 새벽, 하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진우를 깨웠다. 진우가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며 일어났다. 하준은 생수 한병을 진우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옷 입고 나와요."

하준이 진우를 데리고 간 곳은 강변의 산책로였다. 새벽이라 공기가 쌀쌀했다. 하준은 상쾌한 듯이 두 팔을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몸을 풀었다.

"마음과 몸은 하나라서, 몸이 단련되어야 마음도 단련되는 법입니다! 자 어서 따라오세요!"

진우의 얼굴은 붓기가 가시지 않고 깨지못한 잠이 짙게 묻어있었지만 별말없이 앞서 뛰어가는 하준을 따라 뛰었다. 한참 산책로를 뛰어가던 하준은 공터가 나오자 거기서 멈춰섰다.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하준 앞에 섰다. 하준은 두 주먹을 쥐더니 허공을 향해 펀치를 날렸다.

"자 따라 해보세요!"

"잽, 잽, 훅!"

진우가 난감한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하준이 진우의 손을 가져다 직접 주먹을 쥐여줬다.

"화가 나면 풀어야죠. 따라해보세요."

진우가 하준을 따라 주먹을 허공에다 날렸다.

"더 세게요! 잽, 잽, 훅!"

"잽, 잽, 훅!"

진우가 하준을 따라 외치며 따라했다. 그 뒤로 한참동안 하준의 강의가 이어졌다. 하준과 진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진우가 헉헉거리며 숨차하자 하준이 이온음료를 건네며 벤치에 앉았다. 진우가 하준을 따라 옆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셨다. 하준의 눈에 진우의 목젖이 위아래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보였다.

"너무 힘든데 기분이 좋아요."

진우가 하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준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하준은 두근거림을 애써 모른척했다.

저녁에도 특훈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야구 배팅 연습장으로 향했다. 하준은 야구 배트를 들고 기계에서 공이 나오길 기다렸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준을 향해 날아왔다.

깡—-!

하준은 가볍게 공을 쳤다. 연이어 던져지는 공을 받아치며 하준은 외쳤다.

"야! 정성현! 나 그만놀려 짜식아! 내가 너보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났다! 형이라고 불러라!"

공이 나오기를 멈추자 하준은 진우에게 배트를 쥐어 주었다.

"나 이런거 한번도 안해봤어요."

진우가 망설이며 배트를 바로 잡았다.

"지금 해보세요!"

공이 빠르게 진우를 향해 날아왔고 진우는 헛방망이질을 했다.

"공을 제대로 보면 칠 수 있어요!"

진우가 어설프게 배트를 휘둘렀다. 몇번의 실패 끝에 진우의 배트 끝에 공이 맞았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그물망을 치고 떨어졌다.

"우와! 쳤어요!"

진우가 웃는 하준을 보고 따라 웃었다. 그리고 진우는 곧이어 날아오는 공을 보지 못했다. 공은 진우의 그곳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안돼!!!!!!!!!!"

하준이 진우를 껴안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둘의 상체와 하체가 맞닿았고 진우의 귀가 불타듯 빨갛게 달아올랐다.

'또 닿았다…!'

"죄송해요."

하준이 인사하며 파다닥 떨어졌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바닥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나… 오늘은 집으로 갈게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면 좋겠다고."

진우가 하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

하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가 해준 된장찌개가 인덕션 위에 올려져 있었다.

"……."

하준은 진우가 쓰던 방 문을 열고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진우가 입었던 옷을 개어서 정리했다.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신 하준은 잠시 멍때리다가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바지와 티셔츠, 자켓으로 갈아입은 하준은 클럽으로 향했다.

하준은 홀에 가서 몸을 흔들다 모델처럼 얼굴이 작고 늘씬한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그 남자가 하준의 어깨에 두 팔을 걸쳤다.

"우리집으로 갈래?"

하준이 말했다.

"좋아."

남자가 하준의 손을 잡고 클럽을 빠져 나왔다.

"쪽…쪽…쭙…"

하준의 집으로 들어간 남자는 하준의 입술을 달콤한 사탕처럼 빨기 시작했다.

"몇 살이야?"

남자가 물었다.

"서른 아홉."

하준은 지어내 말했다.

"푸흡."

남자가 웃으며 소파 위에 앉았고 무릎 위에 하준을 앉혔다. 하준이 다리를 벌리고 그의 허벅지 위에 올라탔다.

'내가 나쁜게 아니라고 해줘요….'

그때 갑자기 취해서 들어왔던 진우가 떠오른 하준이었다.. 뜨겁고 빨갛던 그의 목덜미같은 것이 생각났다. 하준은 불편한 감각에 휩싸였다. 하준은 자신의 목덜미에 머리를 묻고 빨고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침대로 가자."

남자가 입술을 떼며 하준을 쳐다봤다. 하준이 일어서서 침실로 가자 남자가 그를 따라갔다. 침대에 하준을 눕힌 남자의 얼굴이 하준의 얼굴로 다가왔다. 그때 하준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키스말고 박기나 해."

남자가 작게 웃으며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하준은 엎드려 그의 것이 자신을 가르고 들어오길 기다렸다.

-

"야! 이진우! 여기!"

진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영훈이 진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가게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식과 술 냄새가 뒤엉켜 혼잡했다. 영훈이 자기 옆자리 의자를 툭툭 치며 말했다.

"여기 앉아."

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자켓을 벗어 걸어놓고 앉았다.

"야, 이진우! 너 영훈이가 부르니까 오냐? 잘 지냈냐?"

이미 한잔 걸쳐서 얼큰해진 얼굴의 기욱이 진우에게 말했다.

"응. 너도 잘 지냈지?"

"그렇지 뭐. 근데 시영이는 왜 같이 안왔냐? 싸웠냐?"

"아… 그러니까…"

진우가 뜸들이는 사이에 영훈이 말끝을 자르고 들어왔다.

"야, 이혼했어."

기욱의 눈이 커지면서 진우의 눈치를 봤다.

"이이고, 그랬냐. 미안하다. 내가 미처 몰라서…"

"어어…그래…."

진우가 목덜미를 문지르며 멋쩍게 답했다.

오랜만에 모인 진우의 대학 동기들은 서로 술을 주고 받으며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털어 놓느라 바빴다.

"근데 이진우 너는 왜 대학원 안갔냐?"

기욱 옆에 앉아있던 진태가 물었다.

"김교수가 너 제일 예뻐해서 너 당연히 대학원 가는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없더라?"

"아…그게…"

"야, 진우는 집안사정때문에 빨리 돈 벌어야해서 바로 취직했잖아."

이번에도 영훈이 끼어들어 큰 소리로 말했다. 진우의 귀 끝이 빨개졌다.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는데 기욱과 영훈이 속닥거리며 하는 말이 들렸다.

"야, 사실은 시영이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 진우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고."

"진짜?"

기욱이 놀라며 물었다.

"내가 시영이 좋아했던거 알지? 사실은 진우가 그거 알고 일부러 시영이 좋아하는척 뺏은거야. 난 알았었는데 우리가 워낙 오랜 친구라…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거지."

진우의 심장이 요동치고 두 손이 벌벌 떨렸다. 진우는 맥주가 가득 찬 잔을 들었다. 그리고 영훈의 머리 위에 부었다. 노란 맥주가 영훈의 머리위로 콸콸 떨어졌다. 영훈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이진우! 지금 뭐하는…!"

그때 진우가 영훈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영훈이 테이블 위로 나자빠졌다.

"시영이도! 너도! 바람을 핀건 잘못한거야!"

진우가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뭐?"

영훈이 인상을 쓰고 입가를 매만지며 되물었다. 진우의 눈과 얼굴이 빨갛게 변해갔다.

"너를 지금까지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심해!"

"야, 이진우!"

"다신 보지 말자!"

진우는 그 말을 끝으로 자켓을 챙기는 것도 까먹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

하준은 소파에 누워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 2편을 보고 있었다.

'뻔히 보이는데 저걸 모른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준이 문을 열자 비에 쫄딱 맞아 젖어버린 진우가 서있었다.

"이대리님?"

"하준씨!"

그런데 진우의 표정이 울 것같으면서도 뭔가 기쁨에 찬 표정이라 하준이 뭐라 말해야할지 망설이던 그때 진우가 말했다.

"나 말했어요…! 내 감정 그대로!"

"대리님…!"

하준이 감격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진우를 팔을 잡아 당겨 진우를 집에 들어오게 했다. 하준이 재빨리 수건을 한 장 꺼내와서 진우 머리에 덮었다.

"감기 들겠어요."

그리고 진우 머리를 수건으로 살살 털어주었다. 진우가 그런 하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하준의 동공이 커졌고 둘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곧 이어 하준의 입술이 진우의 입술을 머금었다 떨어졌다. 그러자 이내 진우의 입술이 하준의 입술을 물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입술을 물었다 뗐다 하며 서로의 체온을 교환했다.

'그동안 공들인 보람이 있구나!'

하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진우의 허리를 만지던 손을 진우의 그곳으로 옮겼다.

"!!"

진우의 바지가 터질듯이 부풀어 있었다. 하준은 진우의 그곳을 손으로 훑으며 자극해갔다. 그런데 진우가 갑자기 하준을 밀어냈다.

"미…미안해요!"

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

"이대리님! 이대리님!"

하준은 진우를 뒤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진우를 불렀다.

"나와보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진우가 문을 살며시 열더니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다.

"날 좋아하지도 않을텐데 키스해서 미안해요."

생각지도 못한 진우의 말에 하준이 허탈해하며 대답했다.

"먼저 키스한건 전데요?"

"그치만… 난 하준씨를 좋아하니까…."

진우가 빨개진 목덜미를 매만지며 말했다.

"네?"

하준이 얼빠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런건 좋아하는 사이끼리 하는거잖아요. 미안해요."

하준은 잠시 할말을 잃었다가 생각했다.

'지금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내가… 좋아한다면요? 그럼 해도 되는거예요?"

"네……?"

"조…좇…좋아합니다… 좇..좋아해요…"

'당신의 거기를!!!!!'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날… 좋아한다구요?"

진우의 눈이 동그랗고 크게 떠졌다. 진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하준의 심장이 쿡쿡 쑤시듯 아팠다.

"네… 좋아해요. 대리님…."

진우의 얼굴과 귓불이 붉게 물들었다.

"그러니까 하게 해줘요."

하준이 진우를 벽에 밀쳤다. 그리고 조심스레 진우의 입술을 물었다. 하준의 혀가 진우의 입술을 툭툭 건드리자 진우가 입을 벌려 혀가 들어올수 있도록 해주었다. 혀와 혀가 얽히며 느리고 진득한 키스가 이어졌다.

"으음…."

하준은 진우의 목덜미로 입술을 옮겼다. 그리고 젖은 와이셔츠의 단추를 위에서부터 풀어나가며 가슴과 배에 입맞추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하준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진우가 하준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쓰다듬었다. 하준은 진우의 앞에 무릎꿇고 앉았다. 하준의 입술이 진우 바지 위로 두툼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그곳을 향했다. 기둥의 모양을 따라 입술로 애무하던 하준은 위로 시선을 옮겨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의 얼굴은 붉어질대로 붉어져 터질 것 같아 보였다.

"하…하준씨…!"

하준은 그런 진우가 귀여워 피식 웃었다. 그리고 벨트를 풀고 바지버클을 풀었다. 이제 하준과 진우의 XX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속옷 한장 뿐이었다. 하준은 감개가 무량했다.

하준은 진우의 속옷을 확하고 아래로 내렸다.

'!!!!!!!!!!!!!!!!'

하준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들보다도 길고 굵으며 아름다운 그것이 형체를 드러냈다. 단단해진 그것은 하준을 향해 꼿꼿이 서 하준의 눈에는 빨리 먹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였다.

'잘 먹겠습니다.'

하준은 경건한 마음으로 혀를 내밀어 기둥을 핥았다.

"으읏…."

진우가 신음했다.

"하…하준씨… 안돼요…"

하준이 입을 벌려 귀두를 입안에 머금자 진우가 허억하며 숨을 들이켰다. 하준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것을 입 안에 넣고 빨았다.

"하읏…하준씨… 더러워요…하지 마요…"

하준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것처럼 그것을 입 안에 넣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며 실컷 맛보았다. 진우가 팔을 들어 자신의 눈을 가렸다.

"더..더러워요… 하지 마요…"

계속해서 말리는 진우의 말에 하준이 잠시 그것을 입에서 뺐다.

"맛있어요."

"네?"

진우가 밑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하준은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대리님꺼. 맛있다구요."

말을 마친 하준은 다시 그것을 입에 머금고 격렬하게 고개를 앞뒤로 움직였다. 진우의 것이 하준의 축축한 입 안에서 점점 크기를 더 키워갔다.

'턱 빠질 것 같아.'

진우가 하준의 두 뺨을 양 손으로 잡았다.

"하읏…나올것같아.. 나올것 같아요…!"

그 말에 하준은 입에서 그것을 빼고 손으로 진우 것을 잡아 거칠게 흔들었다. 진우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고 하얗고 진득한 액체가 하준의 어깨와 얼굴에 튀었다. 하준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진우것을 다시 입에 머금고 혀로 그것을 빨았다. 진우가 후희를 느끼며 몸을 잘게 떨었다. 숨을 헐떡이며 하준의 머리를 부여잡고 있던 진우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만…그만해요… 더…더러워…"

하준이 진우의 말에 입맛을 다시며 물러났다. 하준의 입과 진우의 그것 사이에 하얀 액체가 죽 이어지다 떨어졌다.

"미안해요."

진우는 연신 사과하며 하준 앞에 무릎꿇고 앉아 하준의 얼굴에 묻은 하얀 액체를 손으로 정신없이 닦아주었다.

"미안해요. 미안해…."

진우가 안절부절 못하고 울 것 같은 얼굴로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은 기분이 이상했다. 셀 수도 없을만큼 했던 행위였는데 상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건 처음이었다. 꼭 사랑이라도 받는 느낌에 하준의 심장이 쿡쿡 쑤시며 아팠다. 하준은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럼 박아주세요."

하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하준이 자신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으며 다시 말했다.

"박아주세요. 대리님."

진우가 하준의 입에 입맞추었다. 그리고 입술을 떼고 말했다.

"난 하준씨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진우가 하준의 볼에 입맞췄다. 하준이 미간을 좁혔다.

-

재벌가에서 태어난 하준의 엄마 채경은 하준에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해주었다. 부족한건 오직 사랑이었다. 채경은 20대 초반,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파티장에서 일하는 웨이터였다. 그들은 2년동안 싸우고 다시 만나며 만남을 지속했다. 채경은 그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다. 그리고 어느날 채경은 덜컥 임신을 했다.

"나 임신했어."

"뭐?"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집에서는 반대해. 우리끼리 키우자."

채경이 말했다.

"무슨수로? 무슨 돈으로?"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

"지워. 그리고 헤어지자."

채경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너 같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채경이 입에 달고사는 말이었다. 채경은 남자를 똑닮은 하준을 미워했다. 그러고선 밤새 무릎꿇고 앉아 기도를 했다. 그리고나면 하준이 잠든 방에 찾아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곤 했다.

하준은 어릴때 엄마를 떠올리면 항상 화내는 얼굴, 우는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9살의 하준은 그런 엄마가 무서웠지만 일요일 아침 엄마와 교회에 가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항상 냉담하면서 보기도 힘든 엄마를 그 시간동안은 맘놓고 볼 수가 있었다. 채경은 가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상주하면서 하준을 돌봐주곤 했다. 그런데 채경이 하준을 대하는 모

습을 보고 아주머니도 하준에게 살갑게 굴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채경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 채경은 알코올중독으로 시설에 들어갔다. 자연스레 하준은 외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졌다.

"미국 학교에 자리 마련해뒀으니 들어가거라."

하준은 15살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다. 미국에선 동네 아이들이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하준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였던 하준의 유일한 삶의 낙은 미식축구부의 주장이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하준은 그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칼과 두툼한 가슴근육같은것을 떠올리며 자위를 하곤 했다.

"야, 얘가 수업시간에 너 쳐다보던데?"

미식축구부원인 파란 눈의 남자애가 주장에게 말했다.

"아, 역겨워."

주변의 아이들이 눈 찢는 흉내를 내며 웃어댔다. 주장인 아이가 자길 놀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집에 온 하준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다. 하준은 술에 취해 자기 머리를 쓰다듬던 엄마가 떠올랐다.

'그래. 술!'

하준은 자기에게 차고 넘치는 돈을 이용해 술을 구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분 안좋은 일들도 잊을 수가 있었다. 하준은 술을 마시면서 질이 안좋은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하준의 집을 아지트삼아 놀기 시작했다. 그중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녹색 눈에 갈색 머리를 하고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은 파티에 가고 하준과 에릭만 하준의 집에 있었다.

"너 섹스해봤어?"

에릭이 말했다.

"아니"

하준이 말했다.

둘은 누가 먼저랄새도 없이 입술을 겹쳤다. 그리고 하준은 첫경험을 했다. 에릭은 아무런 전희 없이 하준의 구멍에 자신의 그것을 쑤셔 넣었다.

"아악!"

에릭이 하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엎드린 하준 위에서 거칠게 추삽질을 해댔다. 하준은 그 거친행위도 누군가와 나누는 교감이라고 생각하니 흥분되었다. 꼿꼿이 선 하준의 것이 꺼떡였고 하준은 그것을 손으로 잡고 마구 문지르며 자극을 즐겼다.

에릭은 행위가 끝나고 하준의 방에서 비싸보이는 시계하나를 차고 그것을 하준에게 흔들어보이며 집을 나섰다.

"섹스해준 대가야."

하준은 씁쓸했지만 섹스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에릭과 섹스했고 에릭은 그때마다 하준의 악세사리나 돈을 챙겨 나갔다. 그 관계가 끝이 난건 술취한 에릭이 부모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서였다.

하준은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게됐고 하준은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준은 그제서야 채경이 유방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준은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느낌이면서도 별로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하준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하준이 처음으로 만난 하준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주고 하준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었다. 하준은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노력했다.

병원을 다니면서 하준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갑 아이를 알게 되었다. 이름은 상민이었다. 반듯한 이마에 오똑한 코에 무쌍커풀 눈이 매력적이었다. 하준은 그와 섹스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날 상민이 하준의 집에 놀러왔을때 하준의 방에서 그들은 몸을 섞었다. 상민은 에릭과 다르게 하준의 온 몸을 애무했고 하준의 몸이 녹진하게 풀렸을때 자신의 것을 넣었다.

"자, 여기."

하준이 상민에게 비싼 시계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야?"

"섹스해준 대가."

상민이 화를 내며 시계를 내미는 하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매춘부야?"

"어?"

하준은 당황했다.

"난 니가 좋아서 섹스한거지, 이런걸 바라고 한게 아니라고."

상민이 방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하준이 잡았다.

"나도 니가 좋아."

하준이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둘은 입맞췄다.

그 이후로 둘은 달콤한 섹스를 나눴다. 서로가 좋아하는 곳, 더 안달나게 하는 법 같은 것들을 서로를 통해 배웠다. 하준은 매일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상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준은 그날 평생 운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날 놔두고 죽을수가 있어! 사랑은 다 부질없는거야.'

하준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민이 뒤를 가르고 들어오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다. 사랑은 없지만 섹스는 있다. 이때부터 하준의 믿음이 되었다.

-

진우를 보내고난뒤 하준은 음경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펼쳤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진우의 것을 그릴 수 있을까. 하준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치만… 난 하준씨를 좋아하니까….’

‘이런건 좋아하는 사이끼리 하는거잖아요.’

‘난 하준씨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하준은 진우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당히 어울려 놀아주지.’

하준은 노트를 덮고 휴대폰을 켜 진우에게 까똑을 보냈다.

[내일 주말인데 뭐하세요?]

기다리니 답장이 왔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럼 내일 데이트하실래요?]

휴대폰이 한참 조용하더니 까똑하고 울렸다.

[좋아요^^]

-

하준은 네이비색 캐주얼 정장 바지를 입고 흰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반깐 머리를 해서 약간은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우디한 향수를 뿌리고 자켓을 걸친 뒤 흰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거울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하준은 문을 열고 나갔다.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나간 하준은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준씨!"

먼저 도착해 있던 진우가 하준을 불렀다.

"대리님!"

하준이 진우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진우가 등 뒤에 뭘 감추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진우가 등 뒤에서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꺼냈다.

"하준씨 집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요."

붉은 장미다발이 보라색 부직포와 금색 종이에 감싸져 아주 큰 분홍색 리본으로 묶여져 있었다.

"가..감사해요…"

'이 촌스러운 꽃다발은 대체 어디에서 산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커다란 꽃다발을 든 하준을 쳐다봤다. 하준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꽃을 다 먹어버려 없어지면 더이상 이걸 안 들고 있어도 되는걸까?'

"밥 먹으러 가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꽃다발에 가려져 몰랐는데 진우는 상견례라도 가는 예비 신랑처럼 포멀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정장은 각이 딱딱 잡혀 다림질되어 있었다. 까만 자켓과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왁스로 머리를 넘긴 모습이 바로 면접을 보러 가도 될 것 같아 보였다.

"네. 제가 봐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죠."

하준이 진우를 이끌었다. 도착한 곳은 어느 레스토랑이었다. 파란색 의자와 흰 테이블보가 덮인 하얀 테이블이 먼저 눈에 들어오며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곳곳에 있는 초록 식물들도 상쾌하고 생동감있는 느낌을 더했다. 직원이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하준이 자리에 앉아 꽃다발을 옆 자리에 두었다. 음식을 주문했고 곧이어 안심 스테이크 두 접시가 진우와 하준 앞에 놓여졌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직원이 말하며 돌아갔다.

"여기 어때요?"

하준이 두 손을 모아 턱을 괴며 물었다. 그런데 진우가 손을 벌벌 떨며 스테이크를 제대로 썰지 못하고 있었다.

"대리님, 어디 안좋으세요?"

"아…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을…"

하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그게…미안해요. 나 긴장이 돼서…."

진우가 바지에 손의 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다. 하준은 살짝 당황했다.

"이리 주세요."

하준이 진우의 스테이크를 가져다 잘게 썰어서 진우 앞에 다시 놔주었다. 진우가 목덜미를 매만지며 그런 하준을 쳐다봤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서 드세요."

하준의 심장쪽이 콕콕 쑤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길거리를 가볍게 걸었다.

"연극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걸을까요?"

주말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큰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하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번씩 쳐다봤다.

'왜 나에게 이런일이…'

하준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갔다.

"저…하준씨…"

"네. 대리님."

진우가 하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달싹였다.

"왜 그러세요?"

하준의 물음에 진우가 어렵게 입을 뗐다.

"대리님이라고 안 부르면 안돼요?"

"네?"

진우의 얼굴과 귓불이 붉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하준의 눈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그럼…뭐라고…"

하준이 벙찐 표정으로 물었다.

"내 이름 불러주면 좋겠어요."

하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화끈거렸다.

"알았어요. 진우…씨…."

하준이 진우의 눈을 피하며 신발코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연극 시작할 시간 거의 다 됐네요. 가죠."

하준이 장미꽃잎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네. 하준씨."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

집에 돌아온 하준은 커다란 꽃다발을 식탁위에 올려놓았다.

'진우씨라니….'

하준은 마른세수를 하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하준의 심장이 콕콕거리며 아파왔다.

'왜 대리님 생각만 하면 심장께가 아프지…?'

하준이 왼쪽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뭐지?"

하준이 문을 열었다.

"누구.."

문 밖에는 진우가 서있었다.

"진우씨..!"

진우가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하준의 입술을 거칠게 물었다. 하준은 잠시 놀랐지만 곧 자연스럽게 진우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진우의 혀를 감쌌다.

"쭉…쭉…"

조용한 집안에 둘의 입술이 마찰하면서 질척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준이 진우의 머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었다. 진우는 하준의 목덜미에 손을 올려놓고 엄지 손가락으로 하준의 살을 매만졌다. 한참 서로의 입술을 탐하던 두 사람은 떨어져 숨을 골랐다.

"지..진우씨..?"

진우가 하준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깍지를 꼈다.

"하루종일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될거같아서…."

하준의 심장이 쿵쿵하고 요동쳤다.

"갈게요. 잘자요!"

진우가 인사하고 사라졌다. 하준은 입술을 매만지며 방금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생각을 정리했다. 바보인줄 알았는데….

'이진우…대체 뭐야…'

"섰다…."

하준은 단단해진 자신의 것을 느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

"저… 하준씨?"

"네?!!!"

생각에 잠겨있느라 정조윤 대리의 말을 듣지 못한 하준이 뒤늦게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뭐라고 하셨죠?"

조윤이 하준을 향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정신을 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네…."

'이진우때문에 집중이 안돼!'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 하준이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 진우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진우가 변기 앞으로 가더니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봤다.

'그래. 저거. 저거야. 내 목적은 저거 하나라고.'

하준이 진우의 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자 시선을 느낀 진우가 당황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목표에 집중하는거야!'

하준이 마음속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화장실을 나섰다.

-

하준의 계획은 그랬다.

첫번째, 저녁에 집에 초대한다.
두번째, 야한 영화를 본다.
세번째, 분위기가 올라오면 섹스를 한다.

'좋았어!'

[진우씨,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하준이 진우에게 까똑을 보냈다.

[좋아요^^]

'집에 초대하기 성공!'

두 사람은 집에 오는길에 마트에 들러 파스타 재료와 스테이크용 고기를 샀다. 집에와서 알리오올리오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둘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있으니까, 나 여기서 지낼때 생각나네요."

"대리님… 아니 진우씨가 없으니까 허전해요. 그러고보니까 아내분이랑 잘 얘기 하셨어요?"

"네. 하준씨 신경쓰는 일 없도록 할게요."

"……."

진우와 하준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하준이 슬슬 눈치를 보며 티비를 켰다.

"크흠…. 요즘 되게 재밌는 영화가 있대요. 같이 보실래요?"

진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답했다.

"네. 같이 봐요."

영화의 초반부가 지나고 중반부에 들어서자 주인공들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하준은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단추 세 개를 슬그머니 풀었다. 주인공들이 입술을 부딪혔고 두 사람은 격하게 서로의 옷을 벗겼다. 하준이 진우를 힐끔 쳐다봤다. 진우의 얼굴과 귓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준이 진우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점점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준을 쳐다봤다.

"하…하준씨…"

하준이 진우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겼다. 진우가 침을 꿀꺽 삼켰다. 둘의 얼굴이 가까워지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대체 누구야!'

하준이 열받아하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문 밖에는 하준에게 낯익은 여자가 서있었다.

"아내분…?"

"차시영!"

진우가 시영을 보더니 크게 당황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시영이 팔짱을 끼고 당황한 두 사람을 쳐다봤다. 그리고 무언가를 던졌다. 진우가 상체를 숙여 주웠다.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하준이 클럽에서 여러 남자들과 키스하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이런 질 나쁜 애랑 어울리지 말고 돌아가자. 진우야. 응?"

시영이 진우의 두 볼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하준은 눈을 잘게 깜빡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미안해요. 하준씨. 정말 미안해요."

진우가 시영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당겼다. 진우와 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준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넋을 놓고 서있었다.

-

하준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이대리님은… 나같은 놈 이해 못하겠지?'

하준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려쳤다.

'좋아한다는 말 어차피 안 믿었어….'

한 시간 정도 지나자 휴대폰이 울리며 전화가 왔음을 알렸다. 진우였다. 하준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거절을 눌렀다. 무서웠다. 나한테 실망했다면서 나를 떠나겠지. 하준은 가죽자켓을 걸치고 까만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클럽 <Guns Hell>로 향했다.

"오랜만이다?"

바텐더가 하준을 반기며 말했다.

"오늘 좀 어때?"

"쟤 어때?"

바텐더가 멀리서봐도 눈썹뼈가 도드라지고 코가 오똑해 이목구비가 뚜렷한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핏이 잘 맞는 진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에 갈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다. 하준은 왠지 그 남자가 끌리지 않았다. 그 남자 말고 옆에 있는 약간 눈이 쳐지고 수더분한 이

목구비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준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계속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하준을 눈치채고 하준에게 다가왔다.
남자가 하준의 가슴골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집에 갈래?"

하준이 말했다.

"그래."

남자가 하준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하준과 남자는 택시를 타고 하준의 오피스텔로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남자는 하준의 엉덩이에 자기 바지 앞섶을 비비면서 하준의 목덜미를 깨물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도 계속 하준의 목덜미에 입술을 묻고 걸어갔다.

"들어가서 해."

하준이 말하며 자기 집 문 앞에 섰다. 그런데 진우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

"……."

하준과 진우가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하준의 목덜미에 입술을 묻고 있던 남자가 입술을 떼며 말했다.

"뭐야? 남자친구?:"

"……."

"난 셋이 해도 상관없는데."

남자가 말했다. 진우가 이를 꽉 물었다.

"여긴 왜 온거예요?"

하준이 진우에게 물었다.

"사과하고 싶어서…."

진우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 더 할말 있어요?"

하준이 말했다.

"없으면 들어갈게요."

하준이 문을 열고 남자와 함께 들어가려고 할때 진우가 하준의 손목을 잡았다.

"절대 안돼."

하준이 처음 들어보는 진우의 단호한 말투에 당황했다. 하준이 진우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섹스 없이 못 사는 사람이예요. 이런 나는 싫죠?"

"……."

하준이 진우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진우가 하준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럼 나랑 해요."

하준이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섹스, 나랑 해요."

"!!!!!!!!!!!"

진우가 문 안으로 들어가 남자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뭐…뭐야?!"

갑자기 쫓겨난 남자가 황당하다는듯이 쳐다봤다. 진우가 그런 남자를 노려봤다. 그리고 하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잡아 당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대리님, 나중에 후회 하지 말고"

진우가 하준을 벽에 밀치더니 입술을 부딪혀왔다. 진우의 호흡과 따뜻한 숨결이 하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준은 마음으로는 진우를 밀어내고 싶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몸은 벌써부터 진우가 줄 쾌락의 노예가 되어 등 뒤로 전율이 흐르며 허벅지 안쪽이 달아올랐다.

"으음…."

하준이 신음했다. 둘은 급하게 신발을 벗고 소파로 갔다. 진우가 하준의 자켓을 벗기고 하준도 진우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며 하준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반복적으로 빨았다. 하준도 진우의 움직임에 맞춰 고개를 움직이며 진우의 입술을 탐했다. 하준이 입을 살짝 벌리자 진우가 입술 사이로 혀를 넣어 하준의 혀를 핥았다. 그리고 하준의 잇몸와 치아를 혀로 훑으며 점점 더 깊숙이 하준의 입 안으로 침범해갔다. 하준의 혀가 진우의 혀를 옭아매며 지그시 눌렀다. 둘은 서로의 입술을 머금은 채 비비고 문지르며 서로의 체온을 교환했다.

"흐응…"

하준은 백번도 더 해본 키스라는 행위만으로 이렇게 흥분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하준이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자 하준의 탄탄한 가슴 근육이 드러났다. 그러자 진우가 하준의 쇄골뼈에 코끝을 대고 훑었다. 그리고 하준의 가슴에 입술을 묻고 빨기 시작했다.

"하읏…."

진우가 하준의 젖꼭지를 입에 물고 혀를 돌리자 하준이 신음했다. 진우는 입술을 하준의 배, 옆구리쪽으로 옮기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하준의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를 내렸다.

하준이 상체를 세워 다리에 걸쳐진 바지를 마저 빼서 벗어 던졌다. 그리고 진우의 셔츠를 벗겨 그것도 바닥으로 던졌다. 진우의 하얀 민소매 러닝셔츠가 드러났다. 하준은 그것도 위로 올려 벗겨버렸고 진우의 적당히 탄 살구색 피부와 빨간 젖꼭지가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하준은 진우를 소파에 눕히고 혀끝을 세워 진우의 가슴골을 따라 애무해 내려갔다.

"하앗…핫…"

진우가 생경한 감각에 놀란듯 몸을 파르르 떨며 신음했다.

"하…하준씨…"

하준이 진우의 벨트를 풀고 바지 버클도 풀었다. 그리고 바지 끝을 쑥 잡아당겨 한번에 벗겨냈다. 하준이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니 진우의 표정은 오묘했다. 흥분되어 있으면서도 원망스러우면서도 화난것같으면서도 절실해보이는 표정. 하준이 잠시 넋을 놓고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진우가 하준을 소파 위로 눕혔다. 진우가 하준의 양말을 벗기려하자 하준이 말렸다.

"양말은 신고 있을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의 속옷을 천천히 아래로 잡아 당겼다. 크고 두툼한 하준의 그것이 툭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가 느리게 하준의 다리를 굽혀 속옷을 다리 바깥으로 빼냈다. 하준은 이상하게 수많은 밤들과는 다르게 부끄럽다고 느꼈다. 진우가 다시 하준의 입술을 향해 다가왔고 하준은 진우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했다.

"젤이랑 콘돔 어딨어요?"

'진짜 끝까지 하는건가?'

하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준은 소파 옆에 놓여진 협탁 서랍을 열어 젤과 콘돔을 꺼내 바닥에 두었다. 진우는 하준의 아랫배와 사타구니 쪽에 머리를 묻고 입술로 애무했다.

"하읏…."

하준의 등 뒤로 전율이 다시 흘렀다. 바닥에 있던 젤을 든 진우는 검지 손가락에 그것을 쭉 짰다.

"하준씨, 아프면 말해요."

그리고 하준을 엎드리게 한 후 하준의 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천천히 넣었다. 손가락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갔다.

"으응…"

하준이 신음했다.

"아파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아니요. 더 빨리 해줘요."

그 말에 진우가 중지 손가락까지 한번에 넣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하며 구멍을 넓혀갔다.

"하읏… 어서 넣어줘요."

"……."

잠시동안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진우가 이상해서 하준은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의 얼굴이 새빨개져있었다.

"내꺼가… 너무 커서… 안돼요."

"??!!!!!"

"하준씨가 나 싫어할지도 몰라요…."

진우의 그 말에 하준의 그것에 더욱 피가 쏠리며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허윽…!"

"왜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빨리…!"

하준이 재촉했다. 진우가 약지 손가락까지 하준의 구멍에 푹 하고 넣었다. 진우는 정성스럽게 손가락으로 하준의 구멍을 풀어준 뒤 손가락을 하나씩 뺐다. 그 감각을 느낀 하준이 바닥에 있는 콘돔 하나를 집어 이로 그것을 깠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우니 진우가 또 입맞춰왔다. 서로의 혀를 옭아매며 체액을 나누는 진득한 키스였다. 그리고 하준이 진우의 속옷을 내렸다.

"!!!!!!!!!!!!!!!!"

'아니, 이렇게 클 수가 있는건가!'

전에 봤을때보다 더욱 길고 단단하며 큰 진우의 그곳이 하준을 반겼다. 하준은 잠시 넋놓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 싫은거 아니죠?"

'이걸 쓸 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하준은 서랍을 다시 열어 새로운 콘돔을 꺼냈다. 그것은 초초대형 콘돔이었고 언젠가를 위해 직구해둔 물건이었다. 하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걱정을 했다.

'섹스하다가 죽는거 아니겠지?'

하준이 손을 떨며 콘돔을 진우의 것에 씌우려고 하자 진우가 콘돔을 가져갔다.

"부끄러워요…. 내가 할게요."

진우가 직접 콘돔을 그것에 씌웠고 하준이 진우를 바라보고 누웠다.

꿀꺽-

고요함 속에 하준이 침 삼키는 소리가 둘의 귀로 들어왔다. 콘돔을 다 씌운 진우가 그것의 기둥을 손으로 잡고 하준의 구멍 입구에 대었다. 쿵쾅쿵쾅. 하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우가 하준의 뺨 곳곳에 키스했다.

"나 들어갈게요."

진우의 것이 조심스럽게 하준의 입구를 두드렸다. 하준이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하준의 호흡에 맞춰 진우는 서서히 구멍을 파고들어갔고 하준의 구멍이 빠듯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읍…"

"아파요?"

하준이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계속… 해요."

하준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에 힘을 풀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크기의 그것이 하준을 점점 가르고 들어올때마다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것을 뿌리끝까지 천천히 넣었고 하준은 숨을 턱하고 뱉었다.

"괜찮아요?"

진우가 하준의 다리를 들어 올려 입맞추며 말했다.

"움…움직여줘요."

진우가 하준의 말에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읏…"

내벽에 맞물린 진우의 것이 안에 가득찬 느낌이라 하준은 말로할 수 없는 희열감과 동시에 고통을 느꼈다. 진우는 계속 하준의 다리에 입 맞추며 천천히 허릿짓을 이어나갔다.

"좀 더 빨리…. 하읏…."

하준이 허리를 들썩이며 졸라대자 진우가 하준의 두 다리를 어깨에 걸치며 더 깊숙하고 빠르게 하준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진우가 허리를 쳐올릴때마다 하준의 두툼한 몸이 흔들리며 진우의 시각을 자극했다. 하준의 양말을 신은 두 발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하준씨… 하준씨… 읏"

하준은 빈틈없이 꽉찬 진우의 것이 하준의 모든 스팟을 한번에 자극하는 탓에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고 호흡을 가다듬기가 어려워 침을 질질 흘렸다.

“허억..허업..흡…”

하준의 가슴과 배 위에 진우의 땀이 떨어졌다. 둘의 땀냄새와 체향이 서로의 후각을 자극하며 더 안달나게 했다. 하준은 스팟들이 쉴새없이 비벼지고 쑤셔지는 감각에 등 뒤로 찌릿한 전율이 흐름과 동시에 머리가 쭈뼛서는것 같았다. 하준은 진우의 허릿짓에 맞춰 자신도 허리를 움직였다.

“하아…하아…”

“하아…흣…”

서로의 신음소리와 접합부가 맞부딪혀 찌걱대는 물기 젖은 소리만이 집 안에 울려퍼졌다. 하준이 진우의 입술을 찾았고 진우가 하준의 입술을 머금고 비비었다. 하준이 진우의 입술에 매달리듯 파고들었다.

“흐음…흠…”

“하앗…하아…하….”

‘너무 좋아…!’

진우가 더 거칠게 추삽질을 했고 하얀 양말 속 하준의 발가락이 곱아들었다.

“진우…진우 씨 나 갈것같아요…!”

하준이 진우에게 매달리며 허리를 움직였다. 하준의 질척한 점막이 진우의 큰 성기를 사방에서 조이자 진우도 금방 사정할 것 같았다.

“하준씨… 하읏… 나랑 약속해요.”

진우가 눈썹을 찡그리고 밭은 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이런건 나하고만 하겠다고."

"허억…허억…키…키스해줘요…."

하준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다.

"약속해요."

진우가 하준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더 깊게 쳐올리며 말했다.

"아…알았어요. 약속할게요. 키스…키스해줘요…!"

진우가 상체를 숙여 하준의 입속으로 거칠게 파고들었다.

"흐응…흠…."

하준이 자신의 것을 손으로 격하게 비벼댔고 곧이어 하얀 액체가 진우의 배에 뿌려졌다. 하준이 더욱 강렬한 자극을 원한다는 듯 허리를 움직이자 진우가 더 거칠게 허릿짓을 했다. 그리고 하준의 뜨거워진 내벽 안에서 진우도 사정했다.

-

'해…해버렸다…!'

하준은 난감한 표정으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진우를 바라봤다. 하준이 지금까지 해본 섹스 중 제일 많이 느꼈다. 나중에는 진우를 이진우라고 부르며 머리를 껴안고 매달렸다.

'약속해요. 이런건 나랑만 하겠다고.'

'알았어요.'

말도 안되는 약속까지 해버렸다. 하준은 이를 꽉 깨물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하준은 옷방으로 가서 아무 옷이나 주워 입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내 집 내가 나가는 꼴이 우습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생일 축하한다! 짜식아!"

생크림 케이크가 통째로 하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 야, 정성현. 죽고싶냐?"

끈적한 생크림과 빵조각이 하준의 눈썹과 볼 등 얼굴 전체에 묻어 떨어지고 있었다.

"하준씨?"

성현의 목소리에 깬 진우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지…진우씨!"

"헉… 어쩐일로 아침까지 같이 있어?"

반나체인 진우를 보고 성현이 입을 막으며 놀랐다. 진우가 다급히 가슴을 엑스자를 그리며 가렸다.

"근데 어딘가 낯이 익은데…?"

하준이 성현에게 가까이가서 귀에 속삭였다.

"내 사수야. 말 조심해라"

하준의 말에 성현이 꾸벅 상체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헉! 그때 그! 안녕하십니까.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하준이 친구입니다."

"이진우입니다. 저는 하준씨…"

진우가 멈칫하며 하준을 쳐다봤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성현이 손을 내밀어 진우의 손을 잡고 강하게 위 아래로 흔들었다.

"반갑습니다. 하하."

하준이 티슈를 뽑아 눈가의 생크림을 닦으며 말했다.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씻고 온 하준이 거실로 나오자 성현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사수님도 오늘 우리 투어에 함께 하시겠대!"

"뭐?"

하준이 놀라며 진우를 쳐다봤다.

"저기… 또 거절 못하신거면 안 가셔도 됩니다."

하준이 난처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가고싶어요."

진우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성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준이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떨면서 입으로는 웃어보였다. 셋은 택시를 타고 기차 역으로 갔다. 하준은 슬금슬금 진우의 눈치를 보았고, 그때마다 눈이 마주쳐서 하준이 눈을 피한 것이 몇번째였다.

"지금 출발하는 제일 빠른 기차 2명이요."

성현이 직원에게 말했다.

"네? 목적지를 말씀해주셔야…."

직원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목적지를 안정해 놓고 가는게 중요한 거라서요."

-

셋은 기차에 탔다. 최종목적지는 여수였다. 성현이 두 사람을 같이 앉히고 자신은 따로 앉았다. 끝이 둥근 직사각형의 창문 밖으로 저 멀리 옆에 보이는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 화장실 좀."

성현이 화장실에 간다며 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기차가 출발하며 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준씨, 몸은 괜찮아요?"

옆을 보니 진우의 귓불이 붉어져 있었다. 하준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네……. 진우씨는요?"

하준이 붉어진 얼굴로 물었다.

"저도요……."

둘 다 빨개진 얼굴로 각자 다른 곳을 쳐다봤다.

'정성현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안와….'

하준은 휴대폰을 꺼내 성현에게 전화를 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이어 까똑 하나가 왔다.

[데이트 잘 해라. 형님은 빠져주마.]

'!!!!!!!!!!!!!!!'

하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요? 하준씨?"

진우가 다급히 하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게… 정성현 내렸나봐요."

하준의 말에 진우가 당황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우리도 돌아가요… 이것도 정성현이 맨날 우겨서 하던건데…. 다음 역에서 내려요."

진우가 잠시 생각에 잠긴듯 말이 없었다. 하준이 진우를 바라봤다.

"그래요. 오랜만에 바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우가 낙심한 말투로 말했다.

"……. 그럼 바다만 보고 와요."

하준이 말하자 진우가 하준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맞닿을 듯 맞닿지 않은 진우의 왼쪽 발과 자신의 오른쪽 발 사이를 바라보며 하준은 가슴께가 간지러워짐을 느꼈다.

-

역에 도착해 근처에서 가볍게 식사를 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길고 얕은 해안을 가진 해변은 따라 걷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갈매기 떼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젖은 모래밭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하준과 진우는 갈매기 우는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가를 걸었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딴 사람같아요."

하준이 말했다. 진우는 하준의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진우가 살포시 웃으며 대답했다.

"옷 빌려줘서 고마워요."

"뭘요."

두 사람은 말 없이 계속 걸었다.

"내 전 아내가 하준씨한테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해요."

진우가 하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진우씨가 잘못한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준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내가 다 미안해요. 어제 일 모두 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죠?"

진우가 말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고치셔야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또 사과하신다."

"미안..아니..안할게요."

진우가 목덜미를 매만지며 웃었다.

"근데 오늘 생일인거 맞아요…?"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하준이 걷던 걸음을 멈추자 진우가 옆에 같이 멈췄다.

"회사에서 직원들 생일 챙길때 여름쯤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제가…"

하준이 어렵게 입을 뗐다.

"생일을 싫어해요. 이 생일은 정성현이 제멋대로 정한거예요. 본인이 놀러가고 싶을때가 제 생일이예요."

진우가 약간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돼요?"

"……. 그냥… 유치하잖아요."

하준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진우가 그런 하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빠른 걸음으로 하준에게 다가갔다.

"우리 멸치깡이나 줘볼까요?"

하준은 화제를 돌리고 싶어 기차역에서 산 멸치깡을 꺼냈다. 하준이 멸치깡을 집어서 팔을 높이 드니 갈매기가 날아와 멸치깡을 잡아채갔다. 하준과 진우가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이번에는 진우가 과자 하나를 집어 허공에 들어 보였다. 그런데 갈매기가 진우의 그곳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댔다.

"!!!!!!!!!!!!"

'구애의 춤…?'

당황한 진우가 손에 든 과자를 흔들어봤지만 갈매기는 과자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그곳에

서 날갯짓을 했다. 하준이 갈매기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자 갈매기가 멀리 날아갔다.

"큰일 날뻔 했네요."

하준이 가슴을 쓸어 내리며 말했다.

"그러게요. 왜 매번 이러는지…."

'처음이 아니야??!!'

하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를 쳐다봤다. 둘은 멸치깡 주기를 그만두고 계속 걸었다. 말없이 걷다가 진우가 하준을 보며 말했다.

"하준씨는 기독교예요?"

"네?"

"어제…십자가 목걸이를 했길래…."

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고, 하준이 진우의 말에 목에 건 은색 십자가 모양 펜던트를 매만졌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아……. 잘 어울려요."

"……."

하준이 말 없이 작게 미소지었다. 약간의 씁쓸함이 담겨있는 미소였다.

"저…하준씨…."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준을 불렀다.

"네?"

"나……."

진우가 하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준은 왠지 뒤에 이어질 말을 알 것 같았다.

"하준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진우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과 섹스만 할 수 있다면 다른건 상관이 없어.'

"좋아요."

하준의 말에 진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흘렀다.

"사귀어요. 우리."

하준의 심장이 콕콕 쑤시며 아팠다. 하준은 그 통증을 애써 모른척했다.

-

"구내식당 내에 우리 회사 제품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거 어떨까요?"

"오… 괜찮은거 같아요. 신제품 테스트도 하면서 임직원들 식사도 챙기고요."

하준과 진우가 속한 팀이 한참 회의중일때, 진우는 자신을 향해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준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진우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발라먹을까….'

하준은 생각했다. 진우는 그 뜨거운 시선에 진땀을 흘리며 귓불을 붉혔다.

“이진우 대리?”

박지엽 차장이 진우를 불렀다.

“네?”

진우가 놀라 지엽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왜 아무말도 없이 넋놓고 있나? 자네답지 않게.”

“죄…죄송합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진우씨,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요.]

업무를 보다가 까똑을 확인한 진우가 두 볼을 붉히며 미소지었다.

[네^^]

그때 하준은 진우의 답장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간 하준이 진우를 집안으로 밀어넣었다. 들고있던 가방을 아무데나 던진 하준은 진우의 두 볼을 잡고 입술을 부딪혔다. 진우가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다. 하준은 혀로 진우의 입안을 열고 바로 진우의 혀를 감싸며 뿌리까지 빨아올렸다.

“츕…흐음….”

진우가 어찌할 바를 몰라 입을 벌리고 있다가 하준의 혓놀림에 맞춰 혀를 움직였다. 하준이 잠시 입술을 뗐을 때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준씨, 배 안고파요?”

"고파요."

"그…그럼 밥부터 먹고…"

"진우씨꺼 먼저 먹고요."

하준이 진우의 까만 자켓을 벌리며 목덜미에 입술을 묻었다. 그리고 넥타이를 쭉 잡아당겨 머리 위로 그것을 빼내었다. 하준은 진우의 하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 양쪽 가슴에 손을 넣어 셔츠를 양 옆으로 벌렸다. 하얀 러닝셔츠 위에 손을 얹은 하준은 슬슬 진우의 젖꼭지를 쓰다듬고 입술로 가슴과 배를 빨며 점점 밑으로 내려왔다.

"하…하준씨…. 침대로 가요…하앗…."

진우가 고개를 들며 신음했다. 하준이 진우의 말에 진우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하준이 진우를 침대 위에 손으로 밀어 눕혔고 벨트를 풀고 바지 버클을 풀었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이로 물고 살살 내리기 시작했다. 한쪽 눈썹을 찡그리고 바지 지퍼를 내리는 하준의 표정을 표며 진우의 것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꿀꺽…."

진우가 침 삼키는 소리가 하준의 귓가에 들릴만큼 크게 났다. 바지 지퍼를 다 내린 하준이 양다리를 벌려 진우 허벅지 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곧 느껴질 쾌감에 대한 기대감때문에 하준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감이 흘렀다.

"후우....."

하준이 들이쉰 숨을 깊게 내쉬었다. 둘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축축하고 뜨거웠다. 하준은 와이셔츠를 벗어 침대 밖으로 던지고 바지 지퍼를 풀어 바지도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하준을 보고 있는 진우의 귓불이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다.

"벗겨주세요."

하준이 속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우가 하준의 속옷을 양손으로 잡고 느리게 아래로 잡아당겼다. 하준이 다리를 들어올려 진우가 속옷을 벗길 수 있도록 했다. 진우가 걸쳐진 자켓을 벗으려고 하자 하준이 진우의 손을 저지했다.

"옷 벗지 말고… 박아줘요."

하준이 진우의 아랫입술을 물고 느리게 빨다가 고양이 자세를 하며 엎드렸다. 진우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하준이 엉덩이를 내밀고 자기 앞에 무릎꿇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요동쳤다. 진우가 열려진 바지 지퍼 사이로 속옷에서 자신의 그것을 꺼내어 콘돔을 씌우고 그 위에 젤을 쭉 짰다. 그리고 천천히 하준의 아래를 가르고 들어갔다.

"하아....."

하준이 호흡을 길게 내쉬며 몸에 힘을 풀었다.

"헙...."

뜨겁고 부드러운 내벽이 진우의 것을 쫀득하게 감싸자 진우의 아랫배가 찌릿하며 전율했고 진우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뿌리끝까지 천천히 박아넣은 진우는 하준의 표정을 살피고 싶었지만 자세때문에 그럴 수 없어 답답했다.

"괜찮아요?"

하준이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잠시동안 가만히 서로의 이어진 곳이 맥동하는 것을 느꼈다.

"하아... 움직일게요..."

진우가 허리를 들썩이며 하준의 안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 리듬에 맞춰 하준도 허리를 움직였다. 하준의 안에 가득찬 진우의 그것이 꿈틀대며 하준의 내벽을 긁어댔다. 진우의 것은 몇번째 삼키어도 너무 커서 익숙해지지를 않았다. 하준은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진우가 한번 허릿짓을 할때마다 하준은 이로 입술을 물었다.

"더 빨리 움직여도 돼요."

하준의 말에 진우가 더 빠르게 허릿짓을 시작했다. 진우의 골반과 하준의 엉덩이가 부딪히며 찰박찰박 소리가 났다.

"하아…하아…"

"흐읏…"

진우는 자신의 것을 빼냈다가 철썩 허리를 쳐올리며 깊게 하준의 안을 파고들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하준은 몸을 바르르 떨며 신음했다.

"키스…하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하준은 뒤쪽에서 느껴지는 쾌감에 집중하고 싶었다.

"이따가…이따가 해요. 더 빨리…"

진우가 상체를 숙여 하준의 등 여기저기에 입술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물어오는 구멍에 더 집요하게 자신의 것을 넣었다 뺐다했다. 하준이 꺼떡거리던 자신의 것을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하읏…하…좋아…좋아…"

하준이 정신없이 흔들리며 신음했다. 젖은 하준의 내벽이 진우의 것을 꽉꽉 물자, 진우가 이를 꽉 깨물며 더 거칠게 허릿짓을 했다. 하준은 더 빠르게 자신의 것을 손으로 자극했고 곧 이어 하얀 액체를 뿜어내며 무너져내렸다. 진우는 하준의 양쪽 골반을 잡고 강하게 추삽질했다. 하준이 절정을 맛보며 구멍을 더 세게 조여왔고 진우는 하준의 내벽 안에서 사정했다.

"하아…하아…"

진우가 하준의 안에서 자기 것을 빼내더니 엎드려있던 하준을 뒤집어 눕혔다. 그리고 젖은 머리를 쓸어넘겨 올려주며 하준의 입술을 자신의 따뜻한 입술로 덮었다. 서로의 숨이 서로의 입안을 통해 돌아다녔다. 진우가 두 손으로 하준의 양 볼을 잡고 더 깊게 입맞추었다. 하준은 혀로 진우의 혀를 감싼채 자신의 성기를 매만지며 후희를 즐겼다.

-

진우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자 하준이 욕실로 들어갔다. 하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맛있는 냄새가 하준의 코끝으로 들어왔다.

"배고프죠? 파스타 좀 만들었는데 먹어요."

하준이 식탁으로 가자 진우가 파스타 한 접시를 하준 쪽에 놓아주었다.

"감사해요."

회색 티셔츠에 머리를 집어넣으며 하준이 말했다.

둘은 식탁에 마주앉아 토마토 파스타를 포크로 돌돌 말아 먹고있었다.

"맛 괜찮아요?"

진우가 먹성 좋게 먹고 있는 하준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맛있어요. 오늘도 자고 갈거죠?"

"……네."

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이럴거면 차라리 같이 살아요."

'그럼 아무때나 섹스할 수 있을텐데.'

하준은 생각했다. 진우가 그 말에 귓불까지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다.

"내일 소리씨 결혼식 갈때는 따로 가는게 좋겠어요. 의심 받을지도 모르니까…"

하준이 말했다.

"……네."

-

다음날 하준은 흰색 와이셔츠에 차콜 그레이의 세미 포멀한 정장 자켓과 바지를 입고 까만색 넥타이를 맸다. 그리고 까만 구두를 신고 차를 몰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결혼식장 밖 로비에 도착하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었다. 저 멀리 주희와 진우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준을 알아본 주희가 손을 흔들었다.

"주희씨!"

하준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진우씨…아니, 이대리님도 와계셨네요?"

하준이 말하고 주희의 눈치를 살폈다. 주희가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이긴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

"네."

진우가 당황한듯 목덜미를 매만지며 살포시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하준이 보기에 진우의 모습은 오늘도 가관이었다. 90년대 정장 화보에 나올법한 금색에 빨간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매고 벙벙한 까만 자켓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저건 불 태워 버리던가 해야지.'

세사람은 회사 팀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다 모두가 도착하자 축의금을 내고 신부대기실에 가서 소리를 만났다.

"결혼 축하해요! 소리씨!"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과 진우의 팀원들은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 둥글고 하얀 테이블보가 씌워진 테이블에 의자 여섯개 정도가 놓여있었다. 하준이 자리를 잡고 앉자 진우가 그 옆에 앉았다. 하준이 슬쩍 진우를 쳐다보다 진우가 미소지었다.

"신랑 서민식 군과 신부 김소리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랑 서민식 군과 신부 김소리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개회사를 마치고 결혼식은 식순 차례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양가 어머님들이 촛

불에 불을 붙이고 인사를 하고 주례선생님을 소개하고 신랑, 신부가 입장할때마다 하객들의 박수소리가 크게 식장 안을 채웠다. 갑자기 하준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우씨도 이런걸 다 했겠지?'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준은 왠지 모르게 씁쓸해졌다. 옆에 있는 진우를 쳐다보자 진우는 살짝 미소지은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진우가 저렇게 멋진 턱시도를 입고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버진로드를 걸었을 생각을 하니 하준은 왠지 모르게 화가 났다.

"이것으로 신랑 서민식 군과 신부 김소리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사진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과 진우의 팀원들은 순서를 기다렸다가 소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피로연이 있는 홀로 향했다.

뷔페가 마련되어 있는 홀 안의 자리는 회사 팀원 모두가 앉을수 있는 자리가 없어 하준과 진우는 따로 앉았다.

"하준씨는 앉아있어요. 내가 음식 가지고 올게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하준은 스테이크와 회, 고기 종류만 접시에 한가득 담았다. 진우는 여러가지 샐러드와 탕수육, 초밥 등을 골고루 담아 자리로 돌아왔다. 접시의 음식을 깨작거리던 하준이 입을 열었다.

"대리님."

"네?"

진우가 볼 빵빵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대리님은 결혼할때 어땠어요?"

"푸흡. 콜록 콜록."

진우가 하준의 질문에 음식을 잘못 삼키며 사레가 들려 기침을 해댔다.

"그..그건 갑자기 왜요?"

진우가 당황을 숨기지 못하고 되물었다.

"아니에요. 말씀 안하셔도 돼요."

둘은 적막속에 접시에 담긴 음식만 계속 먹었다. 진우는 계속 하준의 눈치를 봤다. 식사를 마친 회사 식구들은 하나씩 피로연 자리를 떠났고 하준과 진우도 자신들의 차를 타고 오늘은 각자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 하준은 상상했다. 이진우는 결혼 했을 때 어땠을까…….

퇴근한 진우가 옷을 다 벗고 앞치마만 입는다. 주방으로 가서 고기를 손질하고 굽는다. 조신하지만 빠른 손놀림으로 된장국도 만든다.

"여보! 밥 드세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말한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해와!"

진우가 울먹이면서 말한다.

"진우는 다시 하기 시른데…? 그냥 이거 먹으면 안돼?"

하면서 앞치마 안의 그것을 꺼낸다. 아내가 식탁의 그릇을 쓸어버린다. 그릇이 다 깨진다. 식탁 위에서 엄청나게 섹스한다.

상상을 마친 하준이 핸들을 쾅하고 내리쳤다.

"이런 미친! 다음엔 앞치마만 입혀 놓고 해봐야겠어!"

그 시각 진우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하준과 결혼한다면…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해야지. 그리고 강아지 한마리도 키우고…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고, 매일 같이 퇴근하고, 같이 집안 대청소를 하고. 옷도 나눠입겠지? 그리고…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

집에 와 샤워하고 나온 하준이 수건으로 물기 젖은 머리를 털며 소파에 앉았는데 까똑이 울렸다.

[하준씨, 좋은 꿈 꿔요^^]

진우였다. 하준은 피식 하고 웃었다.

[네. 진우씨도 잘자요:)]

하준은 답장을 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선 한숨을 길게 쉬었다.

'진짜 연애라도 하는 것 같네….'

-

[하준씨 오늘 저녁밥 밖에서 어때요?]

하준이 점심밥을 먹고 나른한 기분을 쫓으며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스트레칭하고 있을때 진우에게서 까똑이 왔다.

[네. 좋아요.]

건너편에서 진우가 미소짓는게 보였다. 퇴근후, 진우의 차를 같이 타고 도착한 곳은 한방능이 백숙집이었다. 간판에 버섯이 엄지척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닭들이 뛰어놀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건물 외관은 시골에서 직접 지은 황토집같은 모습에 벽에 큰 창문이 뚫려있었다.

‘설마….’

하준은 근사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스토랑이나 깔끔한 인테리어의 가게를 상상했다가 이 곳에 주차를 하는 진우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들어가요. 하준씨.”

“네….”

실내로 들어가니 입구에 서있던 직원이 인원 수를 물었다.

“두명이요. 예약했어요.”

직원이 작은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고 들어가니 분홍색 꽃무늬로 된 벽지가 하준을 반겼다. 하준과 진우는 자주색 방석 위에 마주 앉았다. 상에는 맛깔나보이는 김치나 콩나물무침 등 한식 반찬들이 놓여져있었고, 가스불 위 까만 냄비 안에 뽀얗게 익은 닭이 부추와 파 아래 덮여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하준씨 고기 좋아하죠? 요즘 좀 기운 없어보여서 먹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네…….”

‘진짜 무드없다….’

진우가 하준 앞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 국자로 닭과 버섯 등 채소를 건져주었다. 하준이 숟가락으로 국을 한 술 떠 먹었다.

‘분위기는 좀 그래도 맛은 있네.’

진우가 맛있게 먹는 하준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하준 집까지 하준을 차로 바래다 주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진우가 뒷자석에서 부스럭 부스럭 무언가를 꺼냈다.

“여기요.”

진우가 까만 직사각형의 납작한 상자를 하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하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하준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하얀 얇은 종이에 감싸진 화려한 패턴의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이 몸빼바지에 쓰일 것 같은 패턴은 뭐지?'

하준의 표정이 당혹과 가식적인 미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고…고마워요…."

'몰래카메라인가?'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준씨 조심히 들어가요."

"……영화 보고 가실래요?"

하준이 진우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진우가 침을 꼴깍 삼키며 하준을 봤다.

"……네."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급하게 서로의 입술을 물었다. 둘은 서로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빨다가 혀로 치열을 훑고 서로의 혀를 건드리며 숨결을 공유했다. 하준이 진우의 벙벙한 까만 자켓을 벗기고 빨강과 파랑 체크무늬 넥타이를 당겨 머리 위로 빼냈다. 그리고 까만 스트라이프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그러자 하얀 러닝 셔츠가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도저히 안되겠어요! 백화점에 가야겠어요!"

"네?"

진우가 어리둥절해하며 하준을 쳐다봤다. 하준이 진우의 셔츠를 벗겼다. 그리고 하얀 러닝 셔츠를 두 손으로 잡고 찢어버렸다.

"헉!"

순식간에 드러난 맨살에 진우가 당황하며 가슴을 가렸다.

-

두 사람은 하준의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남성 정장 코너로 향한 하준과 진우는 로즈우드톤의 생기있으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매장으로 들어갔다. 하얀 8등신의 남성 마네킹들이 저마다 근사한 정장을 걸치고 있고 낮은 유리로 된 테이블 밑에는 벨트나 넥타이핀같은 악세사리가 있었다. 벽쪽에는 여러가지 색과 패턴의 자켓과 바지가 걸려있었다.

"이거 입고 와봐요."

하준이 흰색 와이셔츠와 네이비색 바지를 진우에게 건넸다. 하준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진우에게 하준이 미리 골라놓은 넥타이를 매주었다. 진우가 멋쩍어하며 목을 매만졌다.

'잘 어울리네.'

진우는 끊임없이 하준이 입고 오라는 옷을 입고 나왔고, 하준은 진우에게 어울리는 것만 쏙쏙 골라놓고 있었다.

"딥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네요. 이것도 주세요."

하준은 정장 10벌을 골랐다. 하준이 카드를 내밀며 계산하려고 하자 진우가 놀라며 저지했다.

"나 정장 많아요!"

하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보며 대답했다.

"알아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준씨!"

"이제 시계 보러 가요. 이따가 찾으러 와도 될까요?"

"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준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자 진우가 뛰어서 쫓아왔다.

"하준씨, 내가 넥타이 선물한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받으세요. 진우씨. 오늘부로 진우씨 옷은 보기 힘들테니까."

"?"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쇼핑을 마치고 뒷좌석에 새로 산 정장을 실었다. 그리고 하준은 차를 몰고 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둘은 함께 두 손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진우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준이 진우의 옷을 몽땅 옷걸이에서 빼서 빈 박스에 집어넣었다. 진우가 잠자코 하준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내 옷이 맘에 안들어요…?"

진우가 풀 죽은 얼굴로 하준에게 물었다. 하준은 진우가 물에 젖은 쥐처럼 측은해보였다. 그러면서도 손은 냉정하게 옷을 박스에 넣고 있었다. 옷장 밑의 서랍을 열자 셀 수 없이 많은 하얀 러닝 셔츠가 각 맞춰 개어져 있었다. 하준은 그것도 박스에 넣었다.

"내일부턴 내가 사준 옷 입고 와요."

"……알았어요."

하준이 진우의 볼에 쪽하고 입맞췄다. 진우의 귓불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 가요."

하준은 휘파람을 불며 진우 집을 나섰다.

-

"하준씨. 좋은 아침이에요."

하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진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깨와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딥 브라운 자켓에 라이트 블루 컬러 셔츠를 입고 네이비 컬러 타이를 매고 차콜 그레이 컬러 바지를 입고 있는 진우가 보였다. 그리고 까만 가죽 시계까지. 하준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다.

'근사하다….'

"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준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진우는 어색한듯이 목덜미를 매만지며 살포시 웃어보였다.

"어머, 이대리님!"

그때 총무2팀의 정은하 대리가 엘리베이터쪽으로 걸어오더니 진우에게 아는척을 했다.

"안녕하세요. 정대리님."

진우가 은하에게 인사했고 하준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은하가 예쁘게 웃어보이며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가 멋쩍게 머리를 매만지며 답했다.

"가…감사해요. 정대리님도요."

둘은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거지?'

하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사무실에 가자 팀원들의 반응이 핫했다.

"이대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우와. 사람이 달라보인다."

"진작에 이렇게 좀 입고 다니지 왜 그랬어요?"

하준은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런데 인사팀 수경이 진우 모습을 보고 얼굴을 붉힌 것을 본 하준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

다음날도 진우는 하준이 사준 핏이 잘 맞아 떨어지는 네이비 색 자켓과 바지에 흰 셔츠에 무늬가 없는 브라운 넥타이를 매고 검은 옥스포드화를 신고 회사에 왔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은하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늘어지는 시간 은하가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을 들고 진우의 자리로 찾아왔다.

"이대리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저번에 저 도와주신거 감사해서 사는김에 하나 더 샀어요."

은하가 웃으면서 말했다. 진우는 조금 놀란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 괜찮으세요? 저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하준이 건너편을 바라보며 속닥거리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 노력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진우가 하준쪽을 잠깐 봤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그래요."

은하가 자신의 팀으로 돌아갔다. 하준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진우의 표정을 살폈다. 진우가 희미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하준은 마우스와 키보드 자판을 세게 누르고 서류뭉치를 쾅쾅 책상에 쳤다. 하준은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까똑을 보냈다.

[저녁에 우리집에서 된장찌개 먹을래요?]

곧이어 진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저녁에 약속이 생겼어요.]

하준이 까똑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

그 다음날도 진우는 하준이 사준 차콜 그레이색 정장을 입고 회사에 왔다.

"어제 미안했어요. 오늘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같이 집에가요."

진우가 하준에게 말했다.

"그래요."

하준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회사 근처 밥집이 모여있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 둘이 하준과 진우를 향해 걸어왔다.

"저기… 저 너무 맘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하준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리고 거절하려는 찰나,

"이름이 뭐세요?"

여자가 진우를 향해 물었다. 진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상황이지…?'

하준은 진우의 손을 끌고 재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진우의 집으로 곧장 향했다.

"박스 어딨어요?"

"네?"

"그 옷 넣은 박스 어딨냐구요?!"

진우가 옷장 옆에서 옷이 든 박스를 꺼내왔다. 하준이 박스를 열고 진우의 원래 입던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기 시작했다.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준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준씨, 나 역시 안어울리죠?… 하준씨가 사준 옷들 나한텐 너무 과분해서…"

"그런게 아니라…아니, 맞아요. 원래 입던 옷이 훨씬 잘 어울려요."

하얀 러닝 셔츠도 서랍 안에 꽉꽉 채웠다. 그리고 새로산 옷은 박스 안에 넣어 테이프로 봉했다. 진우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미안해요. 생각해서 사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멋있어서 문제라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랬죠! 이쪽으로 와서 바지 지퍼나 내려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하준이 바닥을 쾅쾅 치며 말했다.

'화 좀 풀어야겠으니까.'

진우가 빨개진 얼굴로 하준쪽으로 걸어왔다. 하준이 빤히 쳐다보자 입술을 앙 다물며 벨트를 푸르고 바지 지퍼를 내렸다. 하준이 진우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밑으로 내렸다. 진우의 크고 아름다운 그것이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하준은 귀두부터 기둥까지 한입에 넣었다.

"흐읏…."

진우가 신음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준은 혀로 그것을 감싸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며 격렬하게 그것을 빨며 생각했다.

-

남자가 허리를 깊게 쳐올리자, 하준이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바르르 떨었다. 하준의 엉덩이는 계속된 삽입에 벌겋게 물들었고 남자가 성기를 밀어 넣을 때마다 구멍이 입을 벌리며 그것을 받아먹기 바빴다.

"하읏…하아…"

남자가 하준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내리쳤다. 하준이 그때마다 구멍을 조여댔고 남자가 더 거칠게 추삽질 해댔다. 예민한 곳을 계속 자극해대는 성기 탓에 하준이 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얼굴이 침대 시트 위로 계속해서 쓸렸다. 남자는 그런건 아랑곳 않고 자기 아랫배에 느껴지는 쾌락에만 집중한채 성기를 욱여넣기 바빴다. 남자의 성기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내벽을 자극하고 뒤로 빠지기를 반복하니 하준의 두 다리가 덜덜 떨리고 눈 앞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남자가 하준의 두 손목을 뒤로해 두손으로 잡았다. 하준의 얼굴이 시트 위로 쳐박혔다.

"김하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에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다.

"허억…하읏… 내…이름…어떻게 알았어…"

남자가 비릿하게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더니 하준의 귓가에 가까이 얼굴을 대며 말했다.

"너 같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준이 숨을 크게 들이키며 눈을 크게 떴다. 손바닥과 등에 땀이 가득했다.

'꿈….'

하준이 마른세수를 하며 거친 숨을 가다듬다가 침대 밖으로 나와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기 시작했다.

‘요즘들어 안꾼다했더니….’

하준은 거울 속 자신의 젖은 얼굴을 쳐다봤다. 까만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떨리는 눈동자 안으로 십자가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왔다. 하준은 세면대를 쾅 하고 내리쳤다.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수줍은 미소와 언제 닿아도 따뜻한 손끝같은 것이 떠올랐다.

“하…….”

하준은 샤워부스에 들어가 차가운 물 아래 섰다.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와 어깨를 향해 떨어졌다.

-

“하준씨,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진우가 하준에게 인사했다. 하준은 진우에게 웃어보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대리님.”

하준이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진우가 그런 하준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하준은 그 시선을 알았지만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 사이에 미묘한 적막감이 흘렀다.

하준은 하루종일 실수 연발이었다. 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숫자단위를 틀리고 다른 사람 말은 못 듣기 일쑤였다. 오후 4시쯤 진우가 하준을 야외 휴게실로 따로 불렀다. 차가운 커피를 하준에게 주면서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하준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준이 커피를 받아들면서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요. 알았죠?"

진우가 하준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저 오늘 저녁엔 어디 가볼데가 있어서 저녁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어디 가볼데가 있어요."

"……. 알았어요."

진우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

퇴근 후 하준이 도착한 곳은 어느 교회였다. 하준은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천장에 달린 작은 원형 조명들이 반사되어 빛을 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나무 장식으로 만들어진 벽과 문 반대편으로는 통창이 나있어 밖이 훤하게 보였다. 벽 한켠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진 추상화가 큰 액자에 걸려있고 그 주변으로 테이블과 의자 여러개가 놓여져 있었다.

하준은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나무색 벽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고, 긴 의자들이 나란히 3단으로 줄지어 있었다. 들어가자 마자 보이는 앞의 벽에는 큰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다. 몇몇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하준은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하아……."

하준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많이 달라졌네….'

하준은 주변을 둘러보다 어떤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묵례했고 하준도 고개를 숙

여 인사했다.

‘뭘 어쩌겠다고 여기에 온거지. 빨리 나가자.’

급히 일어나 나가려는데 어떤 남자와 몸이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하준이 사과하며 그 남자 얼굴을 봤는데 아는 얼굴이었다.

‘대물남?’

“어?”

남자도 하준을 보고 놀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여기 교회 다녀?”

남자가 물었다.

“아니.”

“그럼…왜 여기있어?”

남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 어머니랑 어릴때 다니던 교회라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

하준이 말했다.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가봐? 아니면 나쁜가?”

남자가 말했다.

“좋아질수도 없고 나빠질 수도 없지.”

하준이 말했다.

"아……. 좋겠네. 나는 엄마를 싫어하거든."

"……."

"너도 그런가봐?"

남자가 물었다. 하준은 어깨를 한번 들썩일뿐이었다. 남자가 그런 하준을 보고 웃었다.

"내가 이래 봬도 청년상담부라고. 말해봐."

하준이 피식하고 웃었다.

'난 그냥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더 행복했을지 궁금할뿐이야.'

"됐어."

"그럼 섹스는?"

남자가 눈을 찡긋하며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의 머릿속에 진우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 사양할게."

하준은 남자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왔다. 진우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준이 전화기를 꺼내자 진우에게 온 부재중전화 3통이 찍혀있었다. 하준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진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준은 차를 돌려 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진우가 사는 집 앞으로 찾아간 하준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하준은 두 손을 허리에 얹으며 진우에게 무슨 일이 있는건 아닌지 생각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성현이었다.

"정성현, 왜?"

"그게… 사수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니가 다니는 클럽을 물어보셨어. 그래서 가르쳐드렸는데 나 뭐 잘못한건가?"

성현이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끊어."

'내가 클럽에 갔다고 생각했나봐.'

하준은 택시를 타고 클럽 <Guns Hell>로 향했다. 하준은 익숙한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내렸다. 하준이 직장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클럽에 온건 처음이라 문지기가 처음에 막았다가 하준의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줬다. 하준은 클럽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하준이 바텐더 종혁을 불렀다.

"종혁!"

"하준! 무슨 일 있어? 웬 수트?"

종혁이 하준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흥미롭다는 듯 쳐다봤다.

"혹시 되게 촌스러운 사람 한 명 못봤어?"

"헐. 나 봤어."

종혁이 손가락으로 홀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사이로 진우가 어정쩡하게 서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소매를 입은 근육남이 진우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아 당겨 얼굴을 가까이 했다. 진우가 어버버 거리며 그 사람이 쥐고 있는 넥타이를 뺏어오려 안간힘을 썼다. 하준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남자가 진우 앞에서 몸을 흔들며 춤추기 시작했다. 진우가 그 사람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게 보였다. 하준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진우가 하준을 발견했다.

"하준씨!"

남자가 하준의 등장에 기분 나쁜 듯 흥 하며 멀리 가버렸다.

"진우씨, 여기서 뭐해요?"

큰 음악소리때문에 하준이 진우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말했다. 형형색색 갖춰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인의 모습을 한 그들은 이질적으로 보였다.

"미안해요. 하준씨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준이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하준의 기분이 묘했다. 전같으면 분명히 클럽에 왔겠지만 오늘은 진우의 생각이 먼저 났다. 진우의 표정이 육식 동물 사이에 갇힌 토끼같은 표정이었다. 하준은 자신을 의심한 진우가 약간 괘씸해서 놀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우씨, 클럽 와본적 있어요?"

진우가 고개와 손을 저으며 없다고 말했다. 그런 진우의 입술로 하준이 돌진했다. 진우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나려했다. 하준은 진우의 목덜미와 머리를 잡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차례로 빨았다.

"츕…츕…"

그리고 혀를 진우의 입 안 깊이 넣고 진우의 혀를 빨아들였다. 진우가 하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하준의 호흡에 맞춰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둘은 끈덕지게 서로의 입술을 물고 늘어졌다. 하준은 진우 다리 사이에 오른쪽 다리를 넣고 아래를 부비기 시작했다.

"!!!!!!!"

진우가 놀라며 입술을 떼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그들이 뭘 하든 관심 없다는 듯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기 바빴다. 하준이 진우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다. 그때 진우가 다시 입술을 부딪혀왔다. 진우가 하준의 입 안 더 깊숙이 들어가 혀뿌리까지 빨아들였다. 하준의 아랫배가 쾌감에 조여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타액을 삼켜가며 서로의 입안을 헤집고 다녔다. 쿵쿵대는 음악소리와 심장소리가 하나가 된듯 크게 가슴을 치며 울렸다. 한참을 끈덕지게 붙어있던 두 사람은 입술을 떼고 서로의 이마끼리 기대고 섰다. 서로의 숨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준씨랑 있으면 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준이 그 말을 듣고 미소지었다.

"사랑해요."

진우가 하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하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진우가 하준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하준씨, 괜찮아요?"

하준이 그런 진우를 뒤로하고 홀을 빠져나와 클럽을 나갔다. 진우가 따라가려 했지만 빠르게 걸어가는 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

-

하준은 정처없이 밤거리를 걷다가 집으로 향했다.

"……."

문 앞에 진우가 바닥에 앉아 하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이 오자 자리에서 일어난 진우가 손을 내밀어 하준의 볼을 감싸려 했지만 하준이 고개를 돌려 피했다. 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하준씨,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준을 보는 진우의 눈빛이 떨렸다. 하준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와요."

하준이 진우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하준이 어둠속에서 진우의 자켓을 천천히 벗기고 손을 더듬어 넥타이를 푸르고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진우가 러닝셔츠를 위로 올려 벗었다.

"벗겨주세요."

하준이 말했다. 진우가 느릿한 손길로 하준의 자켓과 와이셔츠를 벗겼다. 하준이 벨트와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를 벗었다. 그러자 진우도 바지를 벗었다. 둘은 속옷만 입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어두웠지만 창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빛때문에 서로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준이 진우의 어깨에서부터 가슴으로 서서히 손으로 훑으며 내려왔다. 진우가 작게 몸을 떨었다.

"하아……."

진우가 하준을 껴안고 볼로 하준의 어깨를 비비었다. 가슴과 예민한 곳이 닿으면서 하준이 고개를 들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준도 두팔로 진우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매만졌다. 둘은 아무말없이 서로의 호흡과 살결을 느꼈다.

진우가 하준을 침대로 이끌었다. 하준을 침대 위에 앉힌 진우는 하준의 속옷을 벗겼다. 하준의 단단해진 성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진우 스스로 속옷을 내려 벗었다. 두 사람은 온전히 나신이 되었다. 진우가 침대 위에 앉자 하준이 그 위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탔다.

"하…하아…"

둘은 서로를 느린 손길로 매만지고 이마와 턱을 부비며 서로의 그곳이 닿는 것을 느꼈다.

"하준씨……."

하준이 진우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진우가 입을 벌리며 손가락을 받아들였고 검지와 중지 약지를 순서대로 빨았다. 하준은 타액으로 축축히 젖은 손가락을 자기 구멍에 차례로 넣고 쑤셔댔다. 진우는 하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부벼댔다. 하준의 구멍이 벌름거리며 더 큰 것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은 천천히 몸을 내리며 진우의 것을 귀두부터 삼키기 시작했다.

"하읏……."

엄청난 크기에 하준의 구멍이 빈틈없이 가득찼다. 진우가 하준의 입술을 찾아 물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차례로 빨며 쾌락과 고통 사이에 있는 하준을 달랬다. 하준이 허리를 완전히 내리며 진우의 것을 뿌리끝까지 삼켰다.

"츕…흐응……."

하준이 입술을 떼고 이마를 진우의 어깨에 대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괜찮아요? 하준씨?"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진우의 얼굴을 보며 하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진우의 그것을 몸안에 넣은채 진우의 얼굴을 손끝으로 매만졌고 진우는 그런 하준의 등을 매만지며 서로가 이어져 있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진우의 살짝 쳐진 눈이 다정스럽게 하준을 향해있었고 그 시선은 따스하고 안온해서 하준은 아랫배가 묵직하게 가득 차오

르는 느낌이었다.

하준이 허리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준이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자 진우의 그것이 구멍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하며 하준의 내벽과 진우의 그것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하읏…하…."

진우도 하준의 리듬에 맞게 허리를 쳐올리며 하준의 모든 스팟을 자극했다. 서로 가슴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쿵쿵하는 심장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살이 부딪히며 나는 철벅철벅 소리와 호흡 소리만이 어둠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준씨… 더 깊게 들어가도 돼요?"

하준이 고개를 뒤로 꺾고서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더 강하게 허리를 쳐올리며 하준의 안을 들쑤셨다. 하준의 눈앞이 순간 새하얗게 물들었다.

"아읏…"

"하준씨…하아…"

진우가 하준의 땀에 젖어 흘러내린 머리를 뒤로 넘겨주었다. 하준이 그런 진우의 손가락을 가져다 빨았다. 축축하고 따뜻하게 감싸지는 손가락의 감각에 진우의 배가 수축하며 조여들었다.

"하준씨… 사랑해요."

'!!!'

하준은 대답없이 내벽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한채 눈을 감고 있었다. 진우는 거칠게 허리를 쳐올렸고 하준도 위 아래로 왕복운동을 하며 서로의 것을 물고 조이고 쑤셨다. 하준의 아랫배가 볼록하게 차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두사람은 서로만을 의지한채 흔들리다 절정에 이르렀다.

"하아…하아…"

"하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하준이 진우의 어깨에 턱을 얹은채 말했다. 진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하준은 일부러 눈을 피했다.

"나 한 사람한테 만족 못해요……. 나 진우씨 이제 질려요."

하준이 진우의 것을 몸에서 빼며 몸을 잘게 떨었다.

"하준씨…!"

진우가 하준을 침대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양팔로 침대를 짚고 하준을 내려다봤다.

"그 촌스러운 꼴도 이제 보기 싫어요."

하준은 냉정한 말투로 말하며 진우를 밀치고 욕실로 향했다. 욕실 문을 닫자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준은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았다. 샤워부스에 들어가 찬 물을 틀고 그 아래에 섰다. 온 몸에 묻은 진우의 흔적을 지우며 하준은 진우에 대한 생각도 지우려 노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진우는 없었다.

'왜 있어줄거라고 생각한걸까? 바보처럼.'

-

하준이 어릴적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위에 선물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비싼 시계나 장난감이나 옷 등이 들어있었다. 신나서 거실로 달려나가면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준비해둔 미역국을 내주셨다. 엄마는 하루종일 볼 수가 없었다. 저녁에는 티비에서 해주는 곰돌이와 오리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케이크 한판을 혼자 잘라 먹었다. 하준은 영혼없는 눈빛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은 티비소리밖에 나지 않는 적막한 집이 싫었다. 밤 늦게서야 채경이 들어왔다.

"엄마!"

하준이 채경에게 달려갔다.

"어. 안자고 있었어?"

채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하준에게 물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준이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다.

"밖에 볼 일 있어서. 어서 들어가서 자야지?"

채경이 어르는 말투로 말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준이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엄마는 피곤해."

채경이 성가셔하는 말투로 말했다.

"같이 있으면 안돼요?"

하준이 채경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글쎄 피곤하다니까?"

채경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 말에 하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같이 있어주세요. 엄마."

하준이 엉엉 울면서 채경의 옷자락을 잡았다. 채경이 귀찮아하며 하준을 떨어뜨리려 했다.

"엄마는 나쁜년이야. 나쁜년!"

채경이 몹시 놀라며 하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너 그런말은 어디서 배웠어! 당장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있어!"

하준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다. 하준은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멈출줄을 몰랐다.

"우는소리 한번만 더 내! 그땐 쫓아낼줄 알아!"

하준이 작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하준의 가슴이 위아래로 부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다. 하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준이 울다 지쳐 잠들었을때 머리에 느껴지는 손길에 살짝 잠에서 깼다. 채경이 옆에 앉아있었다.

"엄마?"

채경이 하준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엄마가 하준이 사랑하는거 알지?"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준이 가장 못믿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

하준은 회사에서 진우와 일 때문에 마주치는 일 외에는 진우를 철저히 모른척했다. 진우가 말이라도 걸려고하면 눈빛을 피했고 전화나 까똑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검은자켓과 바지를 입고 클럽으로 향했다. 오늘은 한눈에 봐도 키가 크고 근육질에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남자의 집으로 갔다.

남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준의 머리칼을 꽉 움켜 잡고 침대로 던졌다. 그리고 옷을 거의 찢듯이 거칠게 벗겼다. 자기 옷도 하나씩 순식간에 벗어던지더니 하준의 어깨를 깨물며 잇자국을 남겼다.

"하읏…"

그리고 하준을 엎드리게 하고 고양이 자세를 하게 만들어 엉덩이를 자기 성기에 갖다댔다. 그리고 아무런 전희도 없이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

"아윽… 하앗…"

하준이 고통에 신음했다. 남자는 하준의 두팔을 뒤로해서 손목을 잡고 거칠게 추삽질해댔다. 퍽! 남자가 허리를 깊게 쳐올리자 하준의 내벽이 꿈틀하며 반응했다. 남자는 한 손으로는 하준의 머리칼을 잡고 한손으로는 하준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개처럼 박아댔다. 하준이 남자의 거친 허릿짓에 맞춰 허리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자꾸만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쾌감보다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하읏…"

"어때? 이 더러운 남창같은놈. 박아주니까 좋아?"

하준은 진우와 하나로 이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랫배가 조여오던 그 감각이 그리웠다. 남자에게 정신없이 박히면서 진우의 다정한 눈빛과 손길까지 모든게 더욱 선명하게 몸에 그려졌다.

남자는 하준의 상태따위는 살피지 않고 계속 허리를 쳐올리며 거칠게 쑤시기 바빴다. 하준은 자기 성기를 매만지며 남자의 행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남자가 허리를 털어대다가 성기를 빼내고 하얀 액체를 하준 엉덩이에 흩뿌렸다. 그리고 하준 위로 쓰러졌다. 하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남자의 무거운 몸을 옆으로 밀어내고 욕실로 향했다.

'기분 거지같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하준에게 남자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줬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오면서 하준은 쪽지를 구겨서 버렸다.

-

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클럽으로 향했다. 혼자 집에서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다. 클럽으로 들어가 종혁이 준 얼음물을 마시면서 테이블에서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홀에서 어정쩡하게 춤을 추고 있는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캐주얼

한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하준은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그때 저 멀리서 진우와 아주 닮은 아니 진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

평소의 벙벙한 정장차림이 아니라 섹시하게 라인이 드러나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에 핏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검은 자켓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왁스로 올려 거친 분위기를 풍겼다. 진우가 하준 앞에 있는 남자를 슬쩍 밀어내고 하준 앞에 섰다.

"이…이대리님?"

진우가 조금은 어색하게 하준의 두 어깨에 팔을 올렸다. 그리고 입술을 맞대며 하준의 아랫입술을 빨며 혀를 넣어 치열을 훑었다.

"이대리님…지금 무슨…"

하준이 넋나간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나 이진우 아니에요."

진우가 단호한 눈빛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나 지금 누구도 아니에요."

"네?"

크게 쿵쿵 울리는 노래소리에 맞춰 하준의 심장도 쿵쿵 뛰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랑 잘거야, 말거야?"

진우가 말했다. 하준이 그런 진우의 입술을 거칠게 물었다. 큰 음악소리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둘은 정신없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

두 사람은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가 따뜻한 눈빛으로 하준을 쳐다보며 입 맞추려했다.

"그렇게 쳐다보지마."

하준이 진우를 벽에 확 밀치며 뒤돌렸다. 하준은 진우의 뒤에서 목덜미에 입술을 묻었다. 가죽 자켓을 벗기고 셔츠 위로 혀를 내밀어 등을 훑었다.

"하아…"

진우가 신음하며 이마를 벽에 댔다. 하준이 진우의 두 엉덩이를 꽉 잡았다가 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입술로 바지 위 여기저기를 훑고 지나갔다. 진우의 그곳이 더욱 단단해져 바지 앞섶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하아…하…"

이번에는 진우가 하준을 벽에 밀쳤다. 그리고 하준의 엉덩이에 자기 바지 앞섶을 갖다대고 비비기 시작했다. 턱은 하준의 어깨에 걸친채 하준의 귀를 깨물었다.

"흐읏…"

하준이 신음했다. 진우는 급하게 벨트와 바지 버클을 풀고 자기 성기를 속옷 밖으로 꺼냈다. 하준도 바지를 벗어 아래로 내렸다. 자기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 성기를 매만져준 진우는 하준의 구멍에 자기 성기를 맞추고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다.

"으읏…"

천천히 뿌리끝까지 하준 안으로 들어간 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준의 구멍이 진우의 것으로 가득차 빈틈이 없었다.

"움직여."

진우가 말했다. 하준이 그 말에 허리를 흔들며 앞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의 성기가 하준의 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게 보였다. 진우가 팔을 뻗어 벽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뒤로 꺾었

다. 하준은 계속해서 왕복운동을 하면서 자기 안에 꽉찬 진우의 것이 내벽을 자극해댈수록 성기가 꼿꼿하게 서는걸 느꼈다. 그것이 벽에 스치면서 느껴지는 마찰에 눈앞이 하얘졌다.

"하읏…하아…바…박아줘."

진우가 하준의 말에 퍽하고 거칠게 허리를 쳐올렸다.

"하읏…!"

하준의 귀와 목덜미를 잘근잘근 씹으며 진우는 끊임없이 추삽질했고 하준은 벽에 의지한채 거침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

진우는 매일같이 다른 복장으로 클럽에 와서 하준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몸을 섞었고 정신없이 육체만을 탐하고나면 헤어졌다.

"하아…하아… 더 거칠게 박아줘."

하준이 헉헉대며 말했고 진우가 더 깊고 빠르게 하준의 안을 드나들었다.

"더 거칠게 해줘…."

진우가 하준의 양팔을 뒤로해서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사정없이 허릿짓을 해댔다. 하준은 배속에 구멍이 뚫릴 것 같은 감각에 머리끝까지 쭈뼛서며 등줄기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아…하아…"

하준의 엉덩이와 구멍입구가 빨개져 쓰라려왔지만 쾌감에 짓눌려 느낄새도 없었다. 하준의 구멍은 진우의 것을 끊임없이 조여댔고 진우는 뜨거운 내벽 안을 더욱 깊게 느끼기 위해 허리를 더 휘어가며 털어댔다.

“가…갈것같아…”

하준이 자기 성기를 빠르게 문지르자 하얀 정액이 시트 위로 튀었다. 하준이 절정에 가면서 진우의 성기를 더욱 세게 물어오자 진우도 몸을 잘게 떨며 절정으로 갔다.

진우는 바로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고 샤워를 마치면 아무말 없이 호텔방을 나갔다. 하준은 그럴때마다 혼자 남겨졌고 몸 안에 남은 진우의 흔적을 되새기며 자위하곤 했다. 샤워부스 안에서 정액을 흘려보내면서 하준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

그리고 다음날 하준은 몸살에 걸렸다. 목부터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며 아팠다.

‘감기도 잘 안걸리는 체질인데 몸살이라니…’

하준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다. 거울을 보자 퀭한 얼굴이 보기 흉했다. 하준은 마른 세수를 하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하준은 진우가 떠올랐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우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준씨.’

‘제가 할테니 들어가보세요.’

‘고마워요. 하준씨.’

‘난 하준씨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약속해요. 이런건 나하고만 하겠다고.’

‘하준씨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준씨.’

하준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를 앙 다물었다.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나봐. 하준은 생각했다. 진우와의 시간을 그려보던 하준은 어느새 잠이 들었다.

띵동-

띵동-

하준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하준은 애써 초인종 소리를 무시했다.

띵동-

띵동-

'누구야, 도대체!'

하준은 머리를 부여잡고 현관문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

진우가 울것같은 표정으로 문 앞에 서있었다.

"진우..아니 이대리님…"

진우의 양 손에는 죽과 약봉투가 들려있었다.

"하준씨. 미안해요. 내가 어제 몰아붙여서…."

진우가 손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하준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으며 체온을 쟀다.

"들어가도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진우의 다정한 말투에 하준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눈 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준이 손으로 눈을 덮으며 뒤돌았다. 진우가 급하게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가 하준을 껴안았다.

"많이 아파요?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준의 눈물은 그칠줄을 모르고 흘러 내렸다.

"미안하다고 그만해요."

하준이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부비며 말했다. 진우가 하준의 입술을 찾아 물었다. 서로의 입술을 위아래로 빨며 진득한 키스를 주고 받았다.

"나 이제 이런거 하기 싫어요."

진우가 말했다.

"....."

하준이 계속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난 겁쟁이예요. 그래서 못해요. 당신이 언제 나를 떠날까 그것만 걱정한다고."

"....."

진우가 처절하게 말하는 하준을 안쓰럽게 쳐다봤다.

"그럼 하준씨 마음은요?"

"네?"

"하준씨도 나를… 좋아하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준이 한참동안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다 아랫입술을 물고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요. 그럼 나도 이제 하준씨 괴롭게 안할게요."

하준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약이랑 죽 챙겨먹어요. 갈게요."

진우가 등을 돌려 신발을 신고 나갔다. 쿵하고 닫히는 문에 하준의 심장도 함께 떨어졌다.

-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한 하준을 보며 주희가 경악했다.

"하준씨 유일한 장점이!"

"고맙네요. 주희씨."

하준이 억지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준은 주희와 말하면서도 눈은 진우에게 가있었다. 진우는 업무를 보느라고 하준쪽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하준이 모르는게 있어서 물어볼때도 대답만 칼 같이 할뿐이었다. 하준은 퇴근 후 검은 바지와 자켓을 걸치고 클럽으로 향했다. 바텐더 종혁이 하준에게 인사했다.

"하준! 오늘 진짜 잘생긴 애 봤다. 저쪽에 있어."

"아…응."

하준이 클럽 안을 둘러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야? 아~ 그 섹시한 남자 찾는구나?"

종혁이 알겠다는듯 고갤 끄덕이며 말했다.

"혹시 봤어?"

"아니. 못 봤어. 벌써 딴 남자랑 나갔을지도?"

하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준은 바 한쪽에서 얼음물을 마시며 혹시라도 진우가 올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머리가 길고 스키니진을 입은 남자가 하준 쪽으로 다가왔다.

"나랑 나갈래?"

남자가 말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는 사람있어."

"아쉽네."

남자가 떠났다. 클럽에 온지 몇시간이 지났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도 이제 하준씨 괴롭게 안할게요.'

하준은 컵 속에 있는 얼음을 우드득 씹어먹으면서 생각했다.

'사랑…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하준은 클럽을 빠져 나갔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성현이었다.

"왜."

[야, 어디냐? 등산가자!]

"미친놈이… 취했냐?"

[나 헤어졌다.]

"뭐?"

[찬우형이랑 헤어졌어.]

-

"헉…헉…그래서 이 야밤에 등산을 하겠다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채 성현과 함께 오르막길을 걸으며 하준이 말했다.

"응. 등산은… 언제든 도움이 되니까."

"아얏…!"

하준이 옆에 무성하게 자라난 나뭇가지에 손등을 긁혔다.

"나는 둘이 결혼할줄 알았다."

하준이 씁쓸한 말투로 말했다.

"하긴 9년이나 만났으니까."

성현이 씩씩한 말투로 말하며 계속 산을 올랐다.

"너 괜찮냐?"

"응. 그동안 행복했으니까."

"왜 헤어졌냐?"

"사랑이 식었으니까. 서로 놓아주기로 했다."

"두렵지 않았어?"

하준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뭐가?"

"이런 날이 올걸 알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

"이런 날이 올걸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그때 좋으니까 만나는거지."

"……."

"그럼 찬우형 마음이 바뀔까봐 불안한적은 없어?"

"있지. 근데 불안한 마음보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상관없었어."

"……."

"야, 이 형님이 조언하나 해줄까? 현재 네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 그것만큼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 없다."

"……."

-

다음날 퀭한 얼굴로 출근한 하준에게 주희가 다가왔다.

"꺄악! 하준씨 얼굴이 이게 뭐예요!"

하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헛기침을 했다.

"하준씨… 있잖아요. 이진우 대리님 오늘 선보러 가신대요. 알고 있어요?"

주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말했다.

"네???"

하준이 깜짝 놀라며 큰 목소리로 되물었다.

"두..분이 사귀는거 아니었어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그게… 마…맞아요."

"부장님이 주선한거라던데, 또 거절 못하신거 아니에요?"

하준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선…?'

퇴근 후 하준은 회사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진우의 뒤를 밟았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진우를 따라 몰래 들어가 진우가 앉은 자리가 잘 보이는 뒷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진우가 시계를 보며 상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저거 내가 사준 시곈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얀색 가디건에 검은색 롱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와 진우와 인사를 나눴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연주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그 쪽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에어컨 바람이 좀 춥네요."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자리를 바꿔 앉았고 진우는 뒤 편에 앉아있던 하준과 눈이 마주쳤다. 하준은 다급히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진우는 하준을 본 이후였다. 진우는 그때부터 손과 다리를 달달 떨기 시작했다.

"어디 불편하세요?"

여자가 물었다.

"아…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우쪽으로 다가갔다. 진우가 마시던 물을 뿜으며 콜록댔다. 하준이 진우를 일으켜 세우더니 진우의 허리를 팔로 받치며 진우에게 키스했다.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둘을 바라봤다.

“!!!!!!”

진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다.

“제가 이 남자 좋아합니다.”

“어머나…!”

여자가 입을 틀어막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두 분 잘 만나세요.”

여자가 겉 옷을 챙겨 가게 밖으로 나갔다.

“하…하준씨!”

“미안해요. 나 진우씨 좋아해요.”

하준의 귓불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제 진우씨가 나 싫다고 해도 어쩔수없어요. 계속 쫓아다닐거예요.”

진우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 앉았다.

“진우씨! 괜찮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요.”

하준이 그런 진우 앞에 쪼그리며 앉아 등을 대었다.

"업혀요."

"괜…괜찮아요."

진우가 한사코 거절하자 하준이 진우를 사우나에서처럼 안아들었다. 직원이 가게문을 열어주었고 하준이 진우를 공주님 안기한 채 밖으로 나갔다. 진우의 얼굴과 귓불이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다.